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담적(痰積)의 개념 정립을 위한
문헌적 고찰

지도교수 김 진 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임상한 의학과

홍 욱 기

2021년 8월

석사학위논문

담적(痰積)의 개념 정립을 위한
문헌적 고찰

지도교수 김 진 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임상한 의학과
홍 욱 기

2021년 8월

담적(痰積)의 개념 정립을 위한 문헌적 고찰

지도교수 김 진 성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경희대학교 대학원

임상한의학과 비계내과학 전공

홍 욱 기

2021년 8월

홍육기의 한의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교수 박 재 우 印

부심교수 고 석 재 印

부심교수 김 진 성 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년 8월

목 차

I. 서론	1
II. 방법	2
1. 검색원의 선정 및 연구자료의 검색	2
2. 연구자료의 분석	6
III. 결과	7
1. 고전 한의서에 인용된 담적의 의미 분석	7
1)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7
2) 『의학강목(醫學綱目)』	8
3)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	24
4)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25
5) 『본초강목(本草綱目)』	26
6) 『신간의가필용(新刊醫家必用)』	31
7) 『여과경륜(女科經綸)』	33
8) 『경악전서(景岳全書)』	35
9)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40
10) 『동의보감(東醫寶鑑)』	41
11) 『태산심법(胎產心法)』	48
12) 『의휘(宜彙)』	49
2. 기존 논문에 인용된 담적의 의미 분석	52
1) 중의학의 가증(瘕症) 진료에 대한 이해	52
2) 소법(消法)	53
3) 기능성소화불량 변증시치의 이해	54
4) 지방간 진료 연구	55
5) 반지민 교수의 적증치료 학술경험	56
6) 소아는 “적(積)이 항상 있다” 상태를 시험적으로 논하다	57
7) 울론(鬱論)에 따른 위식도 역류질환 분석	58

8) 요통 병증에 관한 고대 문헌 연구	59
9) 율금천 교수의 치매 치료 경험	60
10) 중의학은 5가지 인체 “오물”을 단번에 제거하라고 가르친다	61
11) 주단계가 비(脾)를 근본으로 삼아 설사를 치료한 특색의 예	62
12) 그 외 논문 요약	63
3. 담적의 의미 분석 결과	65
 IV. 고찰	 69
1. ‘적취(積聚)의 일종’으로서 담적	69
2. ‘담음(痰飲)이 쌓인 것’으로서 담적	71
3. 식적(食積)과 담적	72
4. 심하비경(心下痞硬)과 담적, 그리고 위장 외벽의 굳어짐	73
 V. 결론	 75
 참고문헌	 76
 ABSTRACT	 80

I. 서론

“담적-위장이 굳어지는 새로운 위장병의 발견과 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최¹가 2009년에 발간 된 후로 담적(痰積)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다. 점차 많은 한의사들이 최의 담적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각종 서적과 뉴스, 블로그, 동영상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담적은 ‘위장이 굳어지는 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학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육음(六淫), 칠정(七情) 등의 원발성 병인과 어혈(瘀血), 수습(水濕), 담음(痰飲) 등의 질병 과정에서 생성된 속발성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². 이러한 병인과 관련해서 담(痰), 담음(痰飲), 식적(食積) 등의 용어만큼 담적이 독립적인 한의학적 병인이나 증상을 표현하는 용어로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담적은 적취의 한 종류로 분류해왔고, 특히 복부 가운데 담이 모여 뭉친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痰積者, 痰結於中而成)³. 그런데 최¹는 위장 외벽이 굳어서 복부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이 담적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롭게 발견된 위장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키워드 조회 수를 비교해보면 사람들의 관심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국내 인터넷 검색 포털회사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https://searchad.naver.com>) 키워드 조회 수에 의하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기능성소화불량’의 월간 조회 수는 3,390회인 반면 ‘담적’과 ‘담적병’은 25,890회로 기능성소화불량에 비해 약 7.6배가량 더 많이 검색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한의학 병리용어인 어혈(瘀血)의 월간 조회수가 6,930회인 것을 고려하면 담적이 어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만큼 담적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방증이다. 담적을 치료한다고 광고하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수십여 개가 있으며, 로컬 한의 임상가에서 담적은 인기 있는 클리닉 분야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한의학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 “[2015. 8.1 기준] 의료광고 심의시 사용 불가한 문구” 문건에 의하면 담적, 담적병은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광고 심의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분명 담적은 고전 한의서에 실존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계와 대한한의학협회에서는 최가 주장한 담적의 개념이 한의학 고전중에 나타나는 의미와 차이가 크고, 주요 개념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를 논증하기 위한 담적의 개념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한의학 문헌에서 담적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분석하고, 한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담적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II. 방법

1. 검색원의 선정 및 연구자료의 검색

고전 한의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학고전DB' 사이트 (<https://medicclassics.kr/>)에서 '痰積'을 검색하였다. 한의학고전DB 사이트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을 비롯하여 『난경(難經)』, 『금궤요략(金匱要略)』, 『천금요방(千金要方)』, 『의학강목(醫學綱目)』, 『경악전서(景岳全書)』,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주요 한의학 원전 및 종합의방, 분과서적을 비롯한 총 126종의 한의학 문서가 전산화 되어있다. 2020년 9월1일 기준으로 '痰積'은 35개 의서에서 173회 인용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중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인용된 경우와 풍담적취(風痰積聚), 정담적음(停痰積飲)처럼 담(痰)과 적(積)이 분리되어 해석되는 문구를 제외하였다. 단편적인 경험처방집은 제외하고 주류 종합 의서와 분과서적 위주로 총 12개 의서에서 '痰積'이 포함된 80개의 조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표1).

논문은 Kibase (Korean Medical Database),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OASIS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CNKI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Database)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검색했으며, 검색어는 '담적', '痰積', '痰积'으로 하였다. 출판일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였다. 출판되지 않은 문헌, 컨퍼런스 초록, 신문 등의 문헌은 검색에서 제외하였다. 총 124개의 문헌에서 1개의 중복이 있었고 담적이 언급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없는 문헌을 제외하고 총 53개의 문헌을 선정하였다(표2).

표 1. 담적이 인용된 연구대상 고전 한의서 목록

한의서명	간행연도	저자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992년	왕희은(王懷隱)
의학강목(醫學綱目)	1396년	루영(樓英)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	1425년	위역림(危亦林)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1433년	유효통(兪孝通) 外
본초강목(本草綱目)	1596년	이시진(李時珍)
신간의가필용(新刊醫家必用)	1560년	손응규 원작, 윤춘년 편 (孫應奎 著, 尹春年 編)
여과경륜(女科經綸)	1684년	소훈(蕭垔)
경악전서(景岳全書)	1624년	장개빈(張介賓)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1644년	허임(許任)
동의보감(東醫寶鑑)	1613년	허준(許浚)
태산심법(胎產心法)	1730년	염순새(閻純璽)
의휘(宜彙)	1871년	금리산인(錦里散人)

표 2. 담적이 인용된 논문 목록

NO	제목	출판년도	저자
1	对中医诊治症瘕的体会 ⁴	1962	朱正
2	农村常见急症中医简易疗法(续) ⁵	1966	湖南中医学院
3	贺本绪老中医医案 ⁶	1981	陈选平,赵玉哲
4	消法 ⁷	1981	方药中
5	“百象汤”治疗小儿百日咳 ⁸	1981	陈叔达
6	周小农诊治老年病经验拾萃 ⁹	1982	项平
7	儿科医话两则 ¹⁰	1982	李超
8	《金匱钩玄》治痰撮旨 ¹¹	1984	朱国庆
9	痰积砂淋1例治验 ¹²	1985	陈家璋
10	扶正化痰通淋法治疗泌尿系结石 ¹³	1988	李治方
11	皂荚在儿科的运用 ¹⁴	1992	汪貽魁
12	结胸 ¹⁵	1992	미상
13	痞积 ¹⁶	1992	미상
14	痰积致癰亟当化痰 身痛不休可恃温运 ¹⁷	1993	栾佩岳
15	桔络货紧价扬 ¹⁸	1994	미상
16	自拟腰复散治疗急性腰扭伤204例 ¹⁹	1995	宋树乙
17	消化功能障碍证治体会 ²⁰	1997	时有斌
18	浅谈下法的运用 ²¹	1997	牛建义,魏文义
19	학질(瘧疾)의 증상과 기전에 대한 문헌적 고찰-청대(清代)까지 중국 의서를 중심으로 ²²	1999	류정아,박찬국
20	鹿地五虫汤治疗梨状肌综合征经验 ²³	2002	颜永潮
21	浅谈“善治脾者,能调五脏” ²⁴	2002	江冠亚,蓝燕红
22	脂肪肝的病机及治疗研析 ²⁵	2004	潘智敏,李玉花
23	痰病钩玄——对3部中医权威辞书有关“痰”词条的研究 ²⁶	2004	张年顺
24	中西医结合治疗儿童哮喘急性发作疗效观察 ²⁷	2004	连林辉,林甦,林求诚
25	脂肪肝诊治研析 ²⁸	2005	潘善余
26	二陈汤治验举隅 ²⁹	2005	卢翠飞
27	温下法临证举隅 ³⁰	2006	徐士伟
28	肝纤维化证治六法 ³¹	2006	冷治文,王鹏

표 2. 담적이 인용된 논문 목록(계속)

NO	제목	출판년도	저자
29	礞石滚痰丸服法浅探 ³²	2007	马宏
30	中西医结合治疗声带小结69例 ³³	2007	顾析玲
31	辨“性”吃菜可治病 ³⁴	2007	李永红
32	对“腹痛宜和”的认识 ³⁵	2008	李永红;严季澜
33	浅谈腰痛的辨证论治 ³⁶	2009	陈小明
34	泄泻的古今诊疗概况 ³⁷	2010	高湛
35	马玉琛教授风湿性间质性肺病痰毒并治研究 ³⁸	2010	王勇
36	李学耕小儿哮喘治验 ³⁹	2010	本刊编辑部
37	潘智敏教授治疗积证的学术经验 ⁴⁰	2011	袁国荣;潘智敏
38	试论小儿“积常有”状态 ⁴¹	2012	高树彬;田志伟
39	金元四大家论泄泻特色浅探 ⁴²	2012	朱星;王明强
40	从郁论治胃食管反流病探析 ⁴³	2012	刘仁昌;王光铭;李春婷
41	明代名医李梴论治癥积病症的学术思想研究 ⁴⁴	2012	沈后刚;谭春雨
42	浅谈朱丹溪论泄泻 ⁴⁵	2012	朱星
43	腰痛病证古代文献研究 ⁴⁶	2013	陈怀民
44	《名医类案》与《续名医类案》泄泻案的用药、组方及证治特点研究 ⁴⁷	2013	王皓宇
45	谈谈《褚氏遗书》的中医生理病理观 ⁴⁸	2013	梁天坚
46	《黄帝内经》养生三原则 ⁴⁹	2013	이상
47	潘智敏“五积理论”治疗代谢综合征经验 ⁵⁰	2014	王群江;奚淑芳
48	“积常有”理论对小儿哮喘治疗的指导作用 ⁵¹	2014	严玉莲
49	识别真假瓜蒌子 ⁵²	2014	이상
50	老年人肺部真菌感染的护理 ⁵³	2015	许海燕
51	栗锦迁教授治疗痴呆经验 ⁵⁴	2015	王颖
52	中医教你一键清除这5种人体“垃圾” ⁵⁵	2018	이상
53	朱丹溪以脾为本论治泄泻特色举隅 ⁵⁶	2020	张盼

2. 연구자료의 분석

고전 한의서의 경우 각 조문에 조문번호를 붙이고 원문과 한글번역을 병기하고 담적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근거를 찾아 저자의 분석을 서술하였다. 한글번역은 출판된 번역서가 있으면 그대로 옮기고, 번역서가 없는 조문은 저자가 번역하였다. 해석의 근거는 해당 조문 안에서 찾되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경우 유사한 내용의 원전 조문을 참고하였다. 한글번역과 분석에 관하여 경희대학교 원전학교실 소속의 전임교원에게 검토 및 자문을 구하였다.

논문은 담적이 인용된 53개의 연구대상 논문 중에서 담적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거나 병리기전에 대한 설명이 있거나, 담적을 독립된 병인으로 보고 이로 인한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원문과 한글번역을 병기하고, 저자의 분석을 서술하였다. 이외 단순히 담적을 인용한 것들은 표로 요약 정리하였다.



III. 결과

1. 고전 한의서에 인용된 담적의 의미 분석

1)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태평1. 「卷第五十一・治痰逆不下食諸方」

(원문) 治心胸痰積, 氣噎嘔逆, 食欲不下, 丁香散方⁵⁷.

(번역) 가슴부위(心胸)에 담이 쌓여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하고 구역하며,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처방은 정향산을 투여한다.

(분석) 『경악전서(景岳全書)』 「卷之二十一・明集雜證謨」에 의하면 기열(氣噎)은 심하부위에 답답함이 있고 트림이 계속 나며 먹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氣噎, 心下痞, 噯噦不食). 기열(氣噎)과 구역,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증상은 모두 위장관의 내용물이 정상적으로 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심하 부위의 담적은 기관지나 폐의 의미보다는 인후에서 하부식도에 이르는 위장관 안의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담적이 병인으로 작용하여 유발되는 증상인 기열, 구역, 음식불하(飮食不下)는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2) 『의학강목(醫學綱目)』

강목1. 「卷之十一 肝膽部 · 眩 · 久癰爲痰積」

(원문) 治風癰病久不能愈者, 從厚朴丸. 春秋加添外, 又於每一料中加人參 · 菖蒲 · 茯苓各一兩五錢, 和劑服之. 厚朴丸方見翻胃⁵⁸.

(번역) 풍간병(風癰病)이 오래되어 낫지 않는 자는 후박환(厚朴丸)을 따른다. 봄, 가을에는 이 밖에 첨가하는데, 매(每) 한 되에 인삼, 창포, 복령을 각 한 냥 다섯 돈을 가하여 추가하고 화제(和劑)를 복용한다. 후박환 처방은 변위(翻胃)편에 보라.

(분석) 담적으로 인한 간병(癰病)에 후박환을 쓰고 있다. 『의학강목(醫學綱目)』 「卷之二十二 · 脾胃部 · 嘔吐膈氣總論 翻胃 厚朴丸」에 의하면 “후박환은 변위, 토하며 거꾸로 오르고, 음식이 막혀 답답하고 기(氣)가 심장에 상충하고, 배 안의 여러 질환을 치료한다(主翻胃吐逆, 飲食噎塞, 氣上衝心, 腹中諸疾)”라 하였다. 변위(翻胃)는 반위(反胃)라고도 하며 음식이 위에 들어간 이후 비교적 장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토하는 것을 말한다³. 후박환이 변위(翻胃), 토역(吐逆), 음식열색(飲食噎塞) 등 위장관 내용물이 정상적으로 비워지지 않는 증상을 주치하는 것을 근거로 여기서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간병(癰病)은 신경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2. 「卷之十二 肝膽部 · 諸痺 · 行痺 即走注疼痛 · 飲食痰積」

(원문) 一男子年近三十, 滋味素厚, 性多焦怒, 秋間髀樞左右一點發痛, 延及膝, 晝靜夜劇, 痛劇惡寒, 口或渴或不渴, 或痞或不痞. 醫多用風藥, 兼用補血. 至次年春, 其膝漸腫, 痛愈甚, 食漸減, 形瘦羸. 至春末, 膝腫如桃, 不可屈伸. 診其脈, 左弦大頗實, 寸澹甚, 大率皆數, 知其小便必數而短. 遂作飲食痰積在太陽 · 陽明治之⁵⁸.

(번역) 나이가 삼십에 가까운 한 남자가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성질이 초조함과 성냄이 많았는데, 가을 사이에 넓적다리(髀樞) 좌우의 한 점에 통증이 발생하여 뻗치어 무릎에 미치며, 낮에는 안정되고 밤에는 극심하여 통증이 극심하고 오한이 있었으며, 입이 혹은 마르고 혹은 마르지 않고 혹은 배가 더부룩하고 혹은 더부룩하지 않았다. 의원이 풍약(風藥)을 많이 쓰고, 겸하여 보혈(補血)을 썼다. 다음 해 봄에 이르러 그 무릎이 점점 붓고 통증이 더욱 심해져, 식사도 점점 감소하고 형색이 파리해졌다. 봄 말미에 이르러 무릎 부종이 복숭아만 하여 가히 곱히고 펴 수가 없었다. 그 맥을 진맥하니, 왼쪽이 현대(弦大)하여 자못 실하고, 촌맥(寸脈)은 꺾끄러움(澹)이 심하였는데, 대략 다 삭(數)이었으니, 그 소변이 반드시 잦고 짧음을 알았다. 마침내 음식담적(飲食痰積)이 만들어져서 태양(太陽)과 양명(陽明)에 있으니 그것을 치료하였다.

(분석) 한 남자가 평소에 음식을 고풍후미로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음식담적이 만들어져서(作) 태양(太陽)과 양명(陽明)에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넓적다리의 태양, 양명경락 부위에 직접적인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음식이 소화 및 이후 대사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병리적 산물인 담이 넓적다리의 태양, 양명경락 부위에 쌓인 것이며 이로 인해 통증이 생겼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기서 담적은 수액대사 또는 영양대사의 병리적 산물이라고 해석된다. 넓적다리 좌우의 한 점 통증은 근골격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3. 「卷之十七 心小腸部・諸見血門・吐血・痰積者下之」

(원문) 吐血挾痰積方可下, 若一碗兩碗吐者, 只補陰降火, 用四物大劑之類. 挾痰若用血藥則泥而不行, 只治火, 其血自止. 山樞最清胃脘血⁵⁸.

(번역) 피를 토하는데 담적을 끼고 있으면 처방은 설사를 시키는 것이 옳다. 만약 한 사발, 두 사발을 토하면 단지 보음(補陰)하고 화(火)는 내려야 하니 사물탕 대제(大劑)류를 사용한다. 담을 끼고 있는데 혈약을 쓰면 진득해지고 흐르지 않는다. 단지 화(火)를 치료하면 혈이 스스로 멈춘다. 산치자(山樞)가 위완(胃脘)의 혈(血)을 맑게 하는데 가장 좋다.

(분석) 담적이 끼어있으면 설사를 시키는 처방이 옳다는 것을 근거로 여기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이라고 해석된다. 토법(吐法)과 하법(下法)은 위장관 안에 있는 병리적 원인을 위장관 밖으로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치자가 위완 부위의 출혈을 제일 잘 그치게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위장관 출혈로 인한 토혈이라 판단되고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4. 「卷之十九 心小腸部・癰疽所發部分名狀不同・石癰」

(원문) 痰積

結核, 或在項・在頸・在臂・在身, 如腫毒者, 多在皮裏膜外, 多是痰注作核不散, 問其平日好食何物? 吐下後, 用藥散核⁵⁸.

(번역) 담적

덩어리를 이루어, 혹 뒷목에 있거나 혹 목덜미에 있거나, 팔이나 몸에 있고 종기와 같아서 피부 안, 근막 바깥에 있다. 이것은 거의 다 담(痰)이 흘러 덩어리를 이루고 흩어지지 않아서 생긴다. 평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고, 토하거나 설사 시킨 후 덩

어리를 발산시키는 약을 쓴다.

(분석) 석옹(石癰)을 설명하면서 머리, 목, 어깨, 전신의 피부 속, 막(膜) 바깥에 있으면서 담이 흘러 덩어리를 이루고 흩어지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모이고 흩어짐이 일정하지 않으며(聚散不定) 전신 각처를 돌아다니며 발병하는 담음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기의 담적은 대사의 병리적 산물인 광의의 담음이 쌓인 것으로 해석된다. 석옹은 피부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5. 「卷之二十三 脾胃部 · 泄瀉」

(원문) 痰積

積滯洩瀉, 腹必耕痛方泄者是也. 或肚腹滿, 按之堅者亦是也⁵⁸.

(번역) 담적

적체설사. 배가 반드시 아프고 난 후 설사가 나는 것이다. 혹 배가 그득하고 만지면 단단한 것 또한 그것이다.

(분석) 담적을 설명하면서 적체설사라고 하였다. 위장관내의 물질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고 정체되고 이로 인해 복통 및 만지면 단단한 것(按之堅者)을 동반하면서 설사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주된 증상이 설사이므로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6. 「卷之二十七 肺大腸部 · 鼻塞」

(원문) 濕熱痰積

肥人鼻流清涕, 乃飲食痰積也⁵⁸.

(번역) 습열담적

뚱뚱한 사람이 콧물이 맑게 흐르는 것은 음식 담적이다.

(분석) 코막힘(鼻塞)과 콧물(鼻流清涕) 등 코 증상이 음식 담적의 결과라고 하였다. 음식이 위장관내에서 부적절하게 대사되면서 발생한 병리적 물질이 코에 습열로 영향을 주게 되어 코막힘, 콧물의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의 담적은 수액대사 또는 영양대사의 병리적 산물로 해석된다. 코증상은 호흡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7. 「卷之二十八 腎膀胱部・腰痛」

(원문) 痰積

痰積腰痛，二陳湯加南星．食積・痰積，如脈有力者宜下之⁵⁸．

(번역) 담적

담적요통에는 이진탕에 남성을 가한다. 식적, 담적에 맥유력하면 설사시킨다.

(분석) 요통의 원인으로 식적과 담적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음식의 소화 대사과정에서 병리적인 물질인 담을 형성하고 이것이 허리 부위에 뭉쳐서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의 담적은 광의의 담음인 수액대사 또는 영양대사의 병리적 산물로 해석된다. 요통은 근골격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8. 「卷之三十五 婦人部・胎前症」

(원문) 寸脈沉者痰積

子和:戴人過譙都營中飲，曾有一卒說出妻事，戴人問其故，答曰:吾婦爲室女時，心下有冷積如覆盆，按之如水聲，以熱手熨之如冰，娶來已十五年矣，恐斷吾孕，是以去之．戴人曰:公勿黜也．如用吾藥，病可除，孕可得．卒從之，戴人診其寸脈沉而遲，尺脈洪大有力，非無子之候也，可不逾年而孕．其良人嘆曰:試之．先以三聖散吐涎一斗，心下平軟；次服白朮調中湯・五苓散:後以四物湯和之．不再月，氣血合度，數月而娠一子．戴人常曰:用吾此法，無不子之婦，此言不誣．一婦人年三十四歲，夢與鬼神交，驚怕異常，及見神堂・陰司・舟楫・橋梁，如此一十五年，竟無妊娠．巫祈覲禱，無所不至，鑽肌灸肉，孔穴萬千．黃瘦，發熱引飲，中滿足腫，委命於天．一日苦請戴人．戴人曰:陽火盛於上，陰水盛於下，見鬼神者陰之靈，神堂者陰之所，舟楫・橋梁水之用，兩手寸脈皆沉而伏，知胸中有痰實也．凡三湧三泄三汗，不旬日而無夢，一月而有娠⁵⁸．

(번역) 촌맥이 침(沉)한 것은 담적이다.

자화: 대인(戴人)이 초도의 군영 중을 지나다가 술을 마셨는데, 일찍이 한 병졸이 있어 처의 일을 말하는데, 대인이 그 까닭을 물으니, 답하여 가로되 ‘내 부인이 처녀 시절에 가슴아래에 뒤집힌 동이 같은 냉적(冷積)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르니 물소리와 같았고, 뜨거운 손으로 그곳을 찜질하니 얼음과 같았다. 장가든 지 이미 십 오년인데 잉태가 되지 않을 것이 두려워하여 그를 버렸습니다’ 하였다. 대인이 가로되 ‘공(公)은 쫓아내지 말라. 나의 약을 쓰면 병이 가히 제거될 수 있고, 잉태를 가히 얻을 수 있으리라’ 하였다. 병졸이 그것을 따르자, 대인이 그 촌맥은 침체되고 더디나, 척맥이 크고 힘이 있어, 자식이 없을 징후가 아님이라, 가히 해를 넘지 않고 아이를 뱉 수 있음을 진맥하

였다. 그 양인이 탄식하며 가로되 ‘그것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였다. 먼저 삼성산으로 멀건 침 한말을 토하고, 가슴아래가 평온하고 부드러워짐에 다음으로 백출조중탕·오령산을 복용하고, 다음에 사물탕으로써 복용하였다. 한 달이 거듭하지 않아 혈기가 정도에 합하였고, 수개월에 한 아들을 임신하였다. 대인이 항상 가로되 ‘나의 이 법을 쓰면, 아이 낳지 못하는 부인이 없으리라’ 하였는데,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한 부인이 나이 서른네 살에, 꿈에 귀신과 더불어 사귀어, 겁내고 두려워함이 이상하여, 신당·저승·배와 노·교량을 봄에 미치니, 이와 같음이 십 오년인데, 끝내 임신이 없었다. 무당, 박수무당이 기도하여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고, 살갓을 뚫고 뜬을 뜨고, 침구멍이 천만이었다. 누르고 수척해져, 열이 나고 마실 것을 찾고, 뱃속이 가득차고 발이 부어서 하늘에 목숨을 맡기는 지경이 되었다. 하루는 괴로워하며 대인을 청하였다. 대인이 가로되 ‘양화(陽火)는 위에서 성하고, 음수(陰水)는 아래에서 성하니, 귀신을 보는 자는 음의 영(靈)이라, 신당이라는 것은 음의 장소이고, 배와 노·교량은 물의 쓰임이니, 두 손의 촌맥이 다 침(沉)이고 복(伏)이라, 가슴 가운데에 담실(痰實)이 있음을 알겠다’ 하고, 총 세 번 토하고 세 번 설사하고 세 번 땀을 내자, 열흘이 안 되어 꿈이 없어지고 한 달이 지나 임신이 있었다.

(분석) 심하(心下)에 냉적(冷積)이 뒤집힌 동이처럼 있고 누르면 물소리가 들렸는데 삼성산(三聖散)으로 한 되를 토하고 나서 심하(心下)가 평평하고 부드럽게 되었다는 것, 촌맥(寸脈)이 침(沉)한 것은 담이 실(實)한 것이고 토하고 설사시켜서 치료한다는 근거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 내용물의 병리적 쌓임으로 해석된다. 담적으로 인한 여성의 불임이므로 비뇨, 생식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9. 「卷之三十六 小兒部 · 肝主風 · 偏風」

(원문) 痰積癰者攻積

小兒急慢驚風, 發熱, 口瘡, 手足伏熱, 痰熱 · 痰喘 · 痰嗽, 並用湧法. 重劑用瓜蒂散. 輕劑苦參 · 赤小豆末, 酒 · 酸齋汁調服之. 後用通神散, 蜜丸服之. 間以桑牛陰乾研末調服, 以平其氣⁵⁸.

(번역) 담적이 오래된 것은 뭉친 것을 몰아내야 한다.

소아 급만경풍에 열이 나고, 입안이 헐고, 수족에서 은근한 열이 나고, 담열, 담천, 담수에는 토를 시키는 용법을 병용한다. 과체산을 위주로 쓰고, 고삼, 적소두말을 술이나 초회즙으로 복용한다. 후에는 통신산을 써서 밀환으로 복용한다. 간간히 상우(桑牛)를 음건하여 가루로 갈아서 복용한다. 이로써 기를 평안케 한다.

(분석) 담적이 고질(痼疾)이면 공법(攻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고, 과체산(瓜蒂散)을 언급하고 있다. 과체산은 토법(吐法)의 대표적인 처방이다. 토했을 때 나오는 것은 위장관 내용물이므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편풍(偏風) 및 소아급만경풍(小兒急慢驚風)은 신경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10. 「卷之三十八 小兒部 · 脾主濕 · 赤白痢」

(원문) 痰積脹

阿魏丸 治小兒食積，腹如蜘蛛狀，肚痛，小便白濁⁵⁸.

(번역) 담적창

아위환은 소아가 식적으로, 배가 거미줄모양 같고, 배가 아프고, 소변이 뿌연 것을 치료한다.

(분석) 담적으로 인한 창(脹)을 설명하는데 식적(食積)을 근거로 여기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창(脹)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11. 「卷之三 陰陽臟腑部 · 治法通論 · 辨功擊之非」

(원문) 又曰：我與銀拾錠作路費，我不望報，但欲救汝之死命耳。察其形稍甦，脈稍充，與桃仁承氣一日三貼，下之，皆是血塊痰積，方止。次日乃與熟菜稀粥，將息又半月，其人遂如舊，又半月餘，與銀遂行⁵⁸。

(번역) 또 가로되 ‘내가 은 열덩어리를 주어 노잣돈을 지으리니, 나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만 너의 죽을 목숨을 구하려고 할 뿐이다’ 하였다. 그 형색이 조금 소생하고, 맥이 조금 충실함을 살펴, 도인승기(桃仁承氣)를 하루 세 첩 주어 설사시키니 다 혈괴(血塊), 담적이었고 마침내 그치었다. 다음날에 거둬 익힌 나물 묶은 죽을 주었고, 양생하여 또 반 개월에, 그 사람이 마침내 예전과 같아졌고, 또 반 개월여에, 은을 주고 마침내 떠났다.

(분석) 도인승기탕을 주고 설사 시켰으며 나온 것이 혈괴(血塊)나 담적이라고 설명했다. 설사시켰다는 것은 위장관내의 내용물을 밖으로 내 보냈다는 뜻이므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의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담적으로 유발된 증상은 먹지 못하는 것이니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12. 「卷之五 陰陽臟腑部 · 勞瘵骨蒸熱 · 麥煎散」

(원문) 右勞瘵兼痰績，其症腹脇常熱，手足頭面則於寅卯時分乍有涼時者是也。若頑痰膠固難治者，必以吐法吐之，或沉香滾痰丸・透膈丹之類下之。又甚者，或用倒倉法。若痰績閉塞經脈，則太衝脈與衝陽寸口脈數而不相應者，極難治。自陰虛條至此，凡六法，但患勞者，罕能脫此六法。自此已後數法，宜審而行之，無其病，莫妄施也⁵⁸。

(번역) 담적을 겸한 노채(勞瘵)이니 그 증상은 배와 옆구리가 항상 열이 있고 수족과 머리와 얼굴은 인묘시(새벽3시~아침7시)에 잠깐 서늘한 때가 있는 것이 이것이다. 만약 완고한 담이 끈끈히 붙어서 치료하기 어려운 자는 반드시 토법으로써 그것을 토하게 하여, 혹은 침향곤담환, 투격단류로 그것을 내린다. 더욱 심한 자는, 혹은 도창법을 쓴다. 만약 담적이 경맥을 폐색했다면 태충맥과 충양춘구맥이 빨리 뛰며 상응하지 않는 자이니 극히 치료하기 어렵다. 음허의 조목으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무릇 육법(六法)은, 단지 허로하여 병든 자라면 이 육법에서 능히 벗어남이 드물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이후의 여러 법은 마땅히 살펴서 그것을 행할지니, 그 병이 없으면 망령되이 시행하면 안 된다.

(분석) 담적을 겸한 노채(勞瘵)의 치료를 논하고 있으며 완고한 담이 끈끈히 붙어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법을 쓰라고 했다. 『경악전서(景岳全書)』 「卷之十六・理集・雜證謨・虛損・述古 共四條」에 의하면 “자면서 식은 땀을 흘리고, 오후에 열이 나며 킁킁 기침을 하고 권태무력하며 음식을 적게 먹고 심하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혹은 피를 토하거나 코피나 나면서 몸에 열이 나고, 맥은 침삭(沈數)하고 기육은 마르는데 이를 노채라고 부른다(睡中盜汗，午後發熱，咯咯咳嗽，倦怠無力，飲食少進，甚則痰涎帶血，或咳血・吐血・衄血，身熱，脈沈數，肌肉消瘦，此名勞瘵)”라고 하였다. 노채는 현대 의학적으로 만성 소모성 폐질환에 해당한다⁵⁹. 노채의 증상인 기침하면서 객혈, 객담하는 것을 고려하고 끈끈히 붙어있다는 성상을 고려하면 여기의 담적은 호흡도 분비물의 쌓임으로 해석된다. 노채(勞瘵)는 호흡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13. 「卷之十一 肝膽部・眩・診」

(원문) 丹>左手脈數熱多，脈濇有死血。右手脈實痰績，脈大必有久病⁵⁸

(번역) 단> 좌수맥이 삭(數)하면 열이 많은 것이고, 맥이 색(濇)하면 사혈(死血)이 있다. 우수맥이 실(實)하면 담적이고, 맥이 대(大)하면 반드시 오래된 병이 있다.

(분석) 좌혈우기(左血右氣) 이론을 적용하면 왼쪽은 혈과 연관된 간(肝), 오른쪽은 기(氣)의 생성과 관련된 비폐(脾肺)와 연관되며, 비(脾)의 운화(運化) 작용과 폐의 속강

(肅降)기능의 실조는 담음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여기의 담적은 수액대사 또는 영양대사의 병리적 산물로 해석된다. 증상인 현증(眩症)은 신경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14. 「卷之十七 心小腸部 · 諸見血門 · 咳唾血 · 熱」

(원문) 丹> 先痰嗽，後見紅，多是痰積熱，降痰火爲急．痰涎帶血出，此胃口熱血蒸而出，重則山梔，輕則藍實．荊芥能散喉管痰血⁵⁸．

(번역) 단> 먼저 가래기침(痰嗽)이 있고 후에 붉음이 보이면 이는 대부분 담이 쌓여 열이 나는 것이다. 담화(痰火)를 내리는 것이 급하다. 묽은 침 가래(痰涎)에 피를 동반하여 나오면, 이는 위장 입구의 열이 혈을 혼증하여 나오는 것이니 위중하면 산치자, 가벼우면 남실로 치료한다. 형개는 능히 목구멍의 담혈(痰血)을 흡을 수 있다.

(분석) 담수(痰嗽)는 가래가 있는 기침이고, 형개(荊芥)가 인후부의 담혈(痰血)을 잘 치료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여기서 담적은 호흡도 분비물의 쌓임으로 해석된다. 유발증상은 호흡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15. 「卷之十七 心小腸部 · 諸痿 · 諸痿皆生於肺熱 脈痿得於悲哀太甚 筋痿得於入房太甚 肉痿得於居處濕地 骨痿得於勞倦逢大熱 治痿獨取陽明解」

(원문) 或問曰：治痿之法，取陽明之一經．此引而未發之言，願明以告我．予曰：諸痿生於肺熱．只此一句，便見治法大意．(중략) 故陽明實則宗筋潤，能束骨而利機關矣．治痿之法，無出於此．駱龍吉亦曰：風火既熾，當滋腎水．東垣先生取藥皮爲君，黃芪等補藥輔佐，以治諸痿，而無一定之方．有兼痰積者，有濕多者，有熱多者，有濕熱相半者，有挾氣者，臨病制方，其善於治痿者乎．雖然，藥中肯綮矣，若將理失宜，醫不治也．天產作陽，氣厚發熱，先哲格言．但是患痿之人，若不淡薄食味，吾知其必不能安也⁵⁸．

(번역) 혹자가 물어 가로되 ‘위증(痿症)을 치료하는 법은, 양명(陽明)의 한 경락(經)을 취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끌어 왔으나 아직 잘 알지 못 하는 말이니 원컨대 밝혀 나에게 알려주시오’ 하였다. 내가 가로되 여러 위증들은 폐열(肺熱)에서 생긴다. 다만 이 한 구절이, 곧 치료법의 대의를 보인다. (중략) 그러므로 양명이 실하면 종근(宗筋)이 윤택해지고, 능히 뼈를 묶고 기관(機關)을 이롭게 한다. 위증을 치료하는 법은 이에서 벗어남이 없다. 낙룡길(駱龍吉)도 또한 가로되 ‘풍과 화가 이미 치열하면, 마땅히 신수(腎水)를 불려야한다’ 하였다. 동원선생은 벽피(藥皮)를 취하여 군(君)으로 하고 황기 등으로 보약으로 좌(佐)를 삼고 이로써 여러 위증들을 치료하는데 하나의 정해진 처방이 없었다. 담적을 겸하는 자가 있고, 습함이 많은 자가 있고, 열이 많은 자가 있고, 습함과

열이 서로 반반인 자가 있고, 기(氣)가 껴있는 것이 있으니, 병에 임하여 처방을 지음이, 위증을 치료함에 잘 하는 자로구나.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약 중에 핵심이 있으니, 만약 이치의 마땅함을 잃으면 의사가 치료하지 못한다. 천산(天産, 고기류)은 양기를 짓고, 기의 두터움은 열을 발함이, 선철들의 격언이니라. 다만 위증 환자는 음식을 담박(淡薄)하게 먹지 않으면 반드시 능히 편안해지지 못 할 줄을 나는 안다.

(분석) 위증(痿症)의 치료를 논하면서 양명경(陽明經)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족양명은 위경(胃經)이고 수양명은 대장경(大腸經)임을 고려하면 모두 위장관과 관련된다. ‘만약 음식을 담박하게 먹지 않으면 편안해 질 수 없다는 것(若不淡薄食味, 吾知其必不能安也)’은 담박하게 음식을 먹어서 위(胃)의 부숙(腐熟)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를 근거로 여기서 담적을 겸하였다는 표현의 담적은 위의 부숙기능 저하로 인한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위증(痿症)은 신경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16. 「卷之二十一 脾胃門・內傷飲食・百病皆生於痰・痰症」

(원문) 孫> 綵帛鋪劉員外, 患傷寒六七日, 晝夜不得眠, 方眠即起, 方起即倒, 未嘗少息, 看待厭倦. 召孫, 孫曰: 若言是氣, 必喘作. 今無此症, 非氣也. 時復身上冷汗出, 尺寸脈皆沉, 關中亦沉, 重診之鼓擊於指下, 此痰積寒聚於胸中也. 遂用陳皮・半夏・乾薑三物各一兩爲飲. 薑半兩搗碎, 以水兩碗煎七分, 去渣分二服. 服藥經時遂睡, 經一晝夜不甦. 既覺, 下痰一塊如鷄子大, 其疾遂愈. 凡痰症皆有冷汗, 其症明矣⁵⁸.

(번역) 손> 비단가게의 류원외가, 상한(傷寒)에 병들기가 육칠일에, 주야로 수면을 얻지 못하고, 바야흐로 잠들면 곧 일어나고, 바야흐로 일어나면 곧 거꾸러져, 일찍이 조금도 쉬지를 못하여, 보고 대함이 싫증나고 게을러졌다. 손사막을 부르니, 손사막이 가로되 ‘만약 이것이 기(氣)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천식이 발작할 터이다. 지금 이 증상이 없으니, 기가 아니다’ 하였다. 때에 다시 몸 위에 냉한(冷汗)이 나오고, 척촌맥이 다 침(沉)하고, 관중(關中)도 또한 침하고, 거듭 진맥함에 손가락 아래에서 고격(鼓擊, 북치고 요동침)함이라, 이는 흉중에 담이 쌓이고 한기(寒氣)가 모인 것이다. 마침내 진피・반하・건강(乾薑) 세 약재 각 한 냇을 써서 마시게 하고, 생강 반냥을 부수어, 물 두 사발로써 칠푼으로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두 번 복용하였다. 약을 복용하고 시간이 경과하여 마침내 잠들었는데 하루 낮밤을 지나도록 깨어나지 않았다. 깨어나서 담 한 덩어리를 대변으로 내렸는데 계란크기만 하였으니, 그 병이 마침내 나았다. 무릇 담증은 다 냉한이 있으니, 그 증상이 분명하다.

(분석) 한 환자가 주야로 잠을 못 자는데, 그 원인을 흉중(胸中)에 담적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천식 등의 호흡기 증상은 없으며, 계란만한 담괴를 아래로 배설하고 나서 그 병이 점차 나았다는 것을 근거로 여기서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담적으로 유발된 불면은 신경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17. 「卷之二十一 脾胃門・內傷飲食・百病皆生於痰・滾痰丸治症・神秘沉香丸」

(원문) 右爲末, 水丸, 如梧子大. 白湯食後空心服. 一切新舊失心喪志, 或癲或狂等症, 每服一百丸. 氣盛能食狂甚者, 加二十丸, 臨時加減消息之. 一切中風癱瘓, 痰涎壅塞, 大便或通或結者, 每服八九十丸, 或加至百丸, 永無秘結之患. (중략) 往往病久結實於脾胃之間, 或只暴病全無泛濫者, 服藥下咽即仰臥, 頓然百骸安靜, 五臟清寧. 次早先去大便一次, 其餘遍數皆是痰涕惡物. 看甚麼糞, 用水攪之, 盡係痰片粘涎. 或稍稍腹痛腰腎拘急者, 蓋有一種頑痰惡物, 閉氣滑腸, 裏急後重者, 狀如痢疾, 片晌即已. 若有痰涎易下者, 快利不可勝言, 頓然滿口生津, 百骸爽快. 間有片時倦怠者, 蓋因連日病苦不安, 一時爲藥力所勝, 氣體暫和, 如醉得醒, 如浴方出, 如睡方起. 此藥並不洞泄刮腸大瀉, 但取痰積惡物, 自腸胃次第而下, 腹中糟粕, 並不相傷. 其推下腸腹之糞, 則藥力所到之處, 是故先去其糞. 其餘詳悉, 不能備述, 服者當自知之⁵⁸.

(번역) 위 약재를 가루 내어 수환(水丸)을 오자(梧子)의 크기만 하게 한다. 백탕(白湯)을 식후 공복에 복용한다. 일체의 새롭거나 오래된 마음을 상실하고 의지가 죽은 증상, 혹은 전(癲) 혹은 광(狂) 등의 증상은 매번 백 환을 복용한다. 기가 성하여 능히 식사를 할 수 있으며 광증이 심한 자는 이십 환을 더하고, 때에 임하여 그것을 가감하고 변화시킨다. 일체의 중풍탄탄(中風癱瘓), 담연(痰涎)이 응색하고 대변이 혹은 통하고 혹은 맺히는(結) 자는, 매번 팔구십 환을 복용하고, 혹은 더하여 백 환에 이르면 영영 비결(秘結)의 병이 없다. (중략) 왕왕 병이 오래되어 폐와 위 사이에 결실을 맺거나, 혹은 다만 폭병(暴病)하여 전혀 범람이 없는 자는, 약을 복용하여 목구멍으로 내리고 곧 우러러 보고 누우면, 홀연히 백해(百骸)가 안정되고, 오장이 맑고 편안해진다. 다음날 아침에 먼저 대변을 한차례 누면, 그 나머지 횡수는 다 담체(痰涕) 오물들이다. 분변(糞便)을 보고 물을 써서 그것을 휘저으면 모두 담(痰)조각과 끈끈한 점액으로 연결되어 있다. 혹은 점점 복통이 있고 요신(腰腎)이 구급(拘急)한 자는 대개 일종의 완담(頑痰) 오물이 있음이다. 숨이 막히고 활장(滑腸)하고 이급후중(裏急後重) 함에 증상이 이질과 같다가 잠깐 사이에 곧 그친다. 만약 담연(痰涎)을 쉽게 내리는 것이 있으면 상쾌하고 이로움이 가히 말할 수 없으니 홀연히 입 안 가득 진(津)이 생기고 백해(百骸)가 상쾌해진다. 간혹 잠시 권태로워지는 것이 있는데 대개 연일 병고에 편안치 않다가 일시에

약력(藥力)이 이기는 바가 되어 기체(氣體)가 잠시 조화롭게 되는 것이 취했다가 술이 깨는 것과 같고, 목욕하다 방금 나옴과 같고, 자다가 방금 일어남과 같다. 이 약은 아울러 통설(洞泄) 괄장(刮腸)하여 크게 설사하지는 않으니, 다만 담적 오물을 취하여 장위(腸胃)로부터 차례로 내려와 뱃속의 찌꺼기들을 아우르고 서로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 장과 뱃속의 분변을 밀어내림은 약의 힘이 이르는 바이니 이 때문에 먼저 그 분변을 제거한다. 그 나머지 상세함은 능히 갖추어 말할 수 없으니 복용하는 자가 마땅히 스스로 그것을 알리라.

(분석) 백병(百病)이 담(痰)으로부터 생기고, 이를 치료하는 곤담환에 관한 내용이다. 담적을 오물(惡物), 뱃속의 찌꺼기(腹中糟粕), 장과 뱃속의 분변(腸腹之糞) 등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두 위장관 내용물에 해당한다. 백병이 모두 담으로부터 온다고(百病皆生於痰)이라고 하였으니 유관 증상은 백병으로 분류하였다.

강목18. 「卷之二十三 脾胃部・泄瀉・痰積」

(원문) 痰積泄瀉⁵⁸.

(번역) 담적설사

(분석) 위장관 안의 병리적 물질이 원인이 되어 설사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사는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19. 「卷之二十五 脾胃部・積塊癥瘕・大法」

(원문) 石城, 痰積有塊可用, 洗滌垢膩, 又能消食積. 塊在皮裏膜外, 須用補氣香藥開之, 兼二陳湯加補氣藥, 先須斷厚味. 凡積病不可用下藥, 徒損真氣, 病亦不退, 當用消積藥, 融化開則自消⁵⁸.

(번역) 석감(石城)은 담이 쌓여 덩어리를 이루었을 때 쓸 수 있다. 기름진 때를 세척하고, 또한 능히 음식을 소화시킨다. 덩어리가 피부 안쪽, 막의 바깥쪽에 있을 때 마땅히 기름 보하여 향기 있는 약물로 열어주고 겸하여 이진탕에 보기약을 가하여 쓴다. 먼저 마땅히 후미를 끊어야 한다. 무릇 적병(積病)은 설사약을 쓰는 것이 불가한데, 진기를 손상하고 병 역시 물러나지 않는다. 당연히 소적하는 약을 써야하며, 융화하고 열어주면 저절로 소멸한다.

(분석) 징가(癥瘕)를 근거로 적취로 분류하였다. 종괴(腫塊)가 피부 속과 막 바깥으로

존재한다고(塊在皮裏膜外) 하였으니 분명 위장관 안의 내용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치법에 있어서도 적병은 설사약을 쓰는 것이 불가하고 용화하고 열어주어서 소멸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강목20. 「卷之二十五 脾胃部・積塊癥瘕・大法」

(원문) 垣> 治積要法許學士云:大抵治積, 或以所惡者攻之, 所喜者誘之, 則易愈. 如硃砂・水銀治肉積, 神麴・麥蘗治酒積, 水蛭・虻蟲治血積, 木香・檳榔治氣積, 牽牛・甘遂治水積, 雄黃・膩粉治痰積, 礞石・巴豆治食積, 各從其類也⁵⁸.

(번역) 원(垣)> 적(積)을 치료하는 요법에서 허학사가 말하기를 “대저 적(積)을 치료함에 혹은 더러운 것은 몰아내고, 즐거운 것은 꺾어낸즉 쉽게 치유된다. 요사(硃砂), 수은(水銀)은 육적을 치료하고 신곡, 맥얼(麥蘗)은 주적을 치료하고 수질, 맹충은 혈적을 치료하고 목향, 빈랑은 기적을 치료하고 견우, 감수는 수적을 치료하고 옹황, 이분은 담적을 치료한다. 몽석, 파두는 식적을 치료한다. 각각은 그 종류별로 따른다.

(분석) 징가(癥瘕)를 근거로 적취로 분류하였다.

강목21. 「卷之二十五 脾胃部・積塊癥瘕・隨氣上塞咽中者吐之」

(원문) 煎服一二次, 病遂平復, 再與前藥. 半月後加桔梗煎一服, 令其吐, 吐出痰積, 遂愈⁵⁸.

(번역) 탕전하여 한두 차례 복용하고 병이 마침내 회복되면, 다시 이전 약을 준다. 보름 후에 길경을 가하여 달여서 한차례 복용하여 토하게 한다. 담적을 토출하고 나면 마침내 낫는다.

(분석) 징가(癥瘕)를 근거로 적취로 분류하였다.

강목22. 「卷之二十五 脾胃部・積塊癥瘕・兩脇下積塊」

(원문) 丹> 治食積死血痰積成塊, 在兩脇, 動作腹鳴嘈雜, 眩運身熱, 時作時止⁵⁸.

(번역) 단> 식적과 사혈, 담적이 덩어리를 이루어 양 옆구리에 있는 것을 치료한다. 움직이면 복명, 조잡(嘈雜)을 일으키고 현기증이 나고 신열이 때때로 나고 그친다.

(분석) 징가(癥瘕), 적괴를 근거로 적취로 분류하였다.

강목23. 「卷之二十五 脾胃部・積塊癥瘕・塊部分」

(원문) 潤下丸治痰績. 方見咳⁵⁸.

(번역) 윤하환은 담적을 치료한다. 처방은 해(咳)를 보라.

(분석) 징가(癥瘕), 괴를 근거로 적취로 분류하였다.

강목24. 「卷之二十六 肺大腸部・咳嗽・痰在腸胃脈沉實者宜下・丹墜痰丸」

(원문) 世> 治久嗽痰績. 半夏二兩, 用江子五錢敲損同煮, 至半夏無白心, 去江子不用, 杏仁一兩, 用烏梅半兩同煮, 去烏梅不用, 止將半夏・杏仁焙乾爲末, 煉蜜丸, 如菉豆大. 量虛實服, 服後下痰績⁵⁸.

(번역) 세(世)> 오래된 기침(久嗽) 담적을 치료한다. 반하(半夏) 두 냥에, 강자(江子) 다섯 돈을 써서 덜어서 같이 삶다가, 반하가 백심(白心, 흰 중심)이 없어짐에 이르면 강자(江子)를 제거하여 쓰지는 않고, 행인(杏仁) 한 냥에 오매 반냥을 써서 같이 삶다가 오매를 제거하여 쓰지는 않고, 그치고는 장차 반하・행인을 배건(焙乾)하여 가루로 하고 연밀환(煉蜜丸)으로 하는데 녹두의 크기만 하게 한다. 허실을 헤아려 복용하는데, 복용 후에 담적을 대변으로 내린다.

(분석) 장위(腸胃)에 담이 있고, 맥이 침실(沉實)한 자는 마땅히 설사를 시켜야한다는 문구(痰在腸胃脈沉實者宜下)와 복용 후 담적을 대변으로 내린다(服後下痰績)는 문구를 근거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증상은 만성 기침(久嗽)으로 호흡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위장관 내용물에 의해 호흡기 증상인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며, 이는 임상적으로 위식도 역류질환 같은 소화기질환이 있을 때 만성 기침이 발생 가능한 것과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강목25. 「卷之二十七 肺大腸部・鼻塞・濕熱」

(원문) 嘗治一中年男子, 右鼻管流濁涕, 有穢氣・脈弦小, 右寸滑, 左手寸瀼. 先灸上星・三里・合谷, 次以酒芩二兩, 蒼朮・半夏各一兩, 辛夷・細辛・川芎・白芷・石膏・人參・葛根各半兩, 分七帖服之, 全愈. 此乃濕熱痰績之疾也⁵⁸.

(번역) 일찍이 한 중년 남자를 치료했는데 오른쪽 코에서 탁한 콧물이 흐르고 더러운 냄새가 있고 맥은 현소하고 우수 촌맥은 활하고, 좌수 촌맥은 색(瀼)하였다. 먼저 상성,

삼리, 합곡에 뜸을 하고 이후 주금(酒苓) 2냥, 창출, 만하 각 1냥, 신이, 세신, 천궁, 백지, 석고, 인삼, 갈근 각 반냥을 7첩으로 나눠 복용하고 전부 나았다. 이는 습열과 담적의 질환이다.

(분석) 강목6 조문에서 음식의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병리적 물질이 코에 습열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코막힘, 콧물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조문에서도 비색(鼻塞), 탁체(濁涕)가 습열과 담적의 질환이라고 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여기의 담적은 대사의 병리적 산물로 해석된다. 코 증상은 호흡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26. 「卷之二十七 肺大腸部 · 鼻塞 · 鼻癰肉 · 胃有食積」

(원문) 右鼻中用此藥塞, 更以星 · 半 · 蒼朮 · 酒苓 · 連 · 神麴 · 辛夷 · 細辛 · 白芷 · 甘草, 消痰積之藥服之爲效也⁵⁸.

(번역) 오른쪽 코에 이 약으로 막는다. 다시 남성, 만하, 창출, 주금, 황련, 신곡, 맥아, 신이, 세신, 백지, 감초로써 담적을 없애는 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분석) 비식육(鼻癰肉)의 원인을 위장 안의 식적에서 찾고 있다. 강목6, 강목25 조문과 같은 맥락에서 식적이 습열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코 안에 담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의 담적은 대사의 병리적 산물로 해석된다. 비식육(鼻癰肉)은 호흡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27. 「卷之三十四 婦人部 · 婦人治法通論 · 經閉 · 虛挾積滯者補中去積 · 黃芪當歸人參湯」

(원문) 右虛挾積滯而崩. 嘗治一老婦人血崩不止, 流流不絕, 滿牀皆血, 起牀不得者三月矣. 腹滿如孕. 予作虛挾痰積 · 汚血治之. 用四物四兩, 參 · 朮各一兩, 甘草半兩, 以治虛; 香附三兩, 半夏兩半, 茯苓 · 陳皮 · 枳實 · 縮砂 · 玄胡各一兩, 以破痰積汚血. 分二十帖, 每帖煎加乾荷葉 · 側柏葉湯再煎服之, 服盡良愈. 今再不發, 神效⁵⁸.

(번역) 우(右)는 허증이 적체를 끼어 혈붕(血崩)이 생겼다. 일찍이 한 노부인의 혈붕(血崩)이 그치지 않음을 치료하였는데, 흐르고 흘러 끊이질 않아 상을 피로 가득 채울 정도였고 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이 3개월이었다. 배가 가득 차 임신한 것 같았다. 내가 허증이 담적과 오혈(汚血)을 끼고 있음으로 알고 그것을 치료하였다. 사물(四物) 네 냇을 쓰고, 삼(參) · 출(朮) 각 한 냇, 감초 반 냇으로 허증을 다스리고, 향부 세 냇, 만

하 한 냥 닛 돈, 복령·진피·지실·축사·현호 각 한 냥으로 담적과 오염된 혈(汚血)을 깨었다. 스무 첩으로 나누어, 매첩에 건하엽측백엽탕(乾荷葉側柏葉湯)을 달여서 더하고 다시 달여서 그것을 복용시켰는데, 복용을 다하자 잘 나왔다. 지금 재발하지 않으니 신묘한 효과였다.

(분석) 적체(積滯)를 겸한 허증은 보중하여 적(積)을 없앤다는 원칙을 설명하는 조문이다. 보중거적(補中去積)의 의미는 비위를 보하여 내부의 응집된 적체를 제거한다는 뜻이니 여기에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혈붕은 비뇨생식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강목28. 「卷之三十四 婦人部 · 婦人治法通論 · 赤白帶 · 大法 帶下多是濕痰」

(원문) 丹〉赤白帶羅先生法:或十棗湯, 或神佑丸, 或玉燭散皆可用之. 虛者不可峻攻, 實者可行. 血虛, 加減四物湯. 氣虛, 以朮·參·陳皮間與之. 赤屬血, 白屬氣, 主治燥濕爲先. 濕甚者, 固腸丸. 相火動者, 諸藥中加炒黃柏. 滑者加龍骨·赤石脂. 滯者加葵花. 白者治白帶, 赤者治赤帶. 性躁者, 加黃連. 寒月少加薑·附. 臨機應變, 先須斷厚味. 帶下與夢遺, 同法治之. 肥人有帶, 多是濕痰, 用海石·半夏·南星·炒柏·青黛·蒼朮·川芎. 瘦人帶病少, 如有多是熱, 用炒柏·蛤粉·滑石·川芎·青黛·檳皮. 帶·漏, 俱是胃中痰積流下滲膀胱, 出於大腸小腸, 宜升提, 甚者上必用吐, 以提其氣, 下用二陳湯加白朮·蒼朮, 仍用丸子. 治結痰白帶, 以小胃丹, 半饑半飽, 津液下數丸, 候鬱積行, 卻服補藥⁵⁸.

(번역) 단〉적백대(赤白帶) 나선생의 법: 혹은 십조탕, 혹은 신우환, 혹은 옥촉산을 다 가히 쓸 수 있다. 허한 자는 준엄하게 공격함이 불가하고, 실한 자는 가히 행할 수 있다. 혈허는 사물탕을 가감한다. 기허는 출(朮)·삼(參)·진피로써 더한다. 적(赤)은 혈에 속하고 백(白)은 기에 속하니 주된 치료는 습함을 말림이 우선이 된다. 습이 심한 것은 고장환(固腸丸)이다. 상화(相火)가 동하는 것은 여러 약 중에서 초황백(炒黃柏)을 가한다. 활(滑)인 자는 용골·적석지를 가한다. 체(滯)인 자는 규화(葵花)를 가한다. 흰 것은 백대(白帶)를 다스리고, 붉은 것은 적대(赤帶)를 다스린다. 성품이 조급한 자는 황련을 가한다. 추운 달에는 생강·부자를 조금 가한다. 임기응변 하되 먼저 모름지기 후미(厚味)를 끊는다. 대하(帶下)와 몽유(夢遺)는 같은 법으로 그것을 치료한다. 살찐 사람이 대하가 있으면, 많은 경우 습담이니 해석(海石)·반하·남성·초백·청대·창출·천궁을 쓴다. 마른 사람은 대하의 병이 적으나 있다면 많은 경우가 열증이니 초백·합분·활석·천궁·청대·저피를 쓴다. 대하와 붕루는 다 위(胃) 중의 담적이 흘러내려 방광에서 새어, 대장과 소장에서 나옴이니, 마땅히 올리어 이끌어야 하는데, 심한 자는

위로는 반드시 토(吐)를 써서 그 기를 올리고, 아래로는 이진탕을 쓰되 백출·창출을 가하고 거듭 환자(丸子)를 쓴다. 결담(結痰)과 백대(白帶)를 치료함은 소위단(小胃丹)으로써 반은 굵주리고 반은 배부르게 하며 진액이 내려가길 여러 환(丸)이면 울적(鬱積)이 가는 것을 엿보아 오히려 보약을 복용케 한다.

(분석) 위중(胃中) 담적을 근거로 여기에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위장관내의 병리적 물질이 질내 환경에 영향을 주어 대하(帶下)를 일으킨다는 인식이다. 적백대(赤白帶)는 비뇨생식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3) 『세의학효방(世醫得效方)』

세의1. 「卷第五・大方脉雜醫科・咳嗽・通治・星砂圓」

(원문) 治一切風痰. 利胸膈, 壯脾胃, 及消痰績, 溫中順氣, 內傷生冷, 腹脇脹痛, 酒後痰實嘔吐, 服之神效⁶⁰.

(번역) 모든 풍담을 치료한다. 흉격 부위를 이롭게(利)하고 비위를 복돋아 담적을 소멸한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순조롭게 한다. 생랭(生冷)한 것에 내상되어 배와 옆구리가 부풀면서 아프고, 음주 후에 담이 실하여 구토 나는 것을 치료한다. 복용하면 신표하다.

(분석) 해수(咳嗽)의 통치방 성사원(星砂圓)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풍담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풍담으로 인한 기침을 치료하는데 흉격 부위를 이롭게(利)한다는 것은 인후부와 기관 등 호흡도(呼吸道)를 좋게 하여 가래를 없앤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여기서의 담적은 호흡도의 분비물로 해석된다. 해수(咳嗽)는 호흡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세의2. 卷第之十五・産科兼婦人雜病科・食積・三稜煎

(원문) 治血癥・血瘕, 食積, 痰滯.

三稜 煨 莪茂 煨. 各二兩 青橘皮 去白 半夏 麥芽 炒. 各一兩

右以好醋六升煮乾, 焙爲末, 醋糊圓, 梧桐子大. 每服三四十圓, 淡醋湯下. 痰績多, 以姜湯送下⁶⁰.

(번역) 혈징, 혈가, 식적, 담체를 치료한다.

삼릉 구운 것, 아술 구운 것 각 두 냥, 청귤피 흰 부분은 제거하고, 반하 맥아 볶은 것 각 한 냥

위의 약재를 좋은 식초 여섯 되로 삶고 말린 후 가루로 한다. 식초로 풀을 써 둥글게 빚어 오동나무씨앗 크기로 한다. 매 복용 시에 3~40환을 연한 식초 물로 삼킨다. 담적이 많으면 생강 달인 물로 내려 보낸다.

(분석) 부인잡병의 식적을 치료하는 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담적이 많을 때는 생강탕으로 복용한다고 하였는데 손사막의 『천금방(千金方)』에 의하면 “생강이 구가(嘔家)의 성약(嘔家多服生薑, 此是嘔家聖藥)”이라는 것을 근거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유발 증상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4)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향약1. 「卷第四 · 風門 · 一切風通用方」

(원문) 《崔氏海上集》葳靈仙 去衆風，通十二經脈，朝服暮效。四肢輕健，手足溫煖，並得清涼。治丈夫婦人，中風不語，手足不隨，口眼喎斜，筋骨節風，繞腕風，胎風，頭風，暗風，心風，風狂人，及傷寒頭痛，鼻清涕，頭旋目眩，白癩風。極治大風，皮膚風痒，火毒熱毒，風瘡，勞疾痰績⁶¹。

(번역) 《최씨해상집》 위령선 모든 풍증을 제거하고 12경맥을 통하게 하는데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효과를 본다. 사지를 가볍고 튼튼하게 하며 손발이 따뜻해지며 아물러 속이 시원해진다. 남자와 여자의 중풍으로 말을 못하는 것과 손발을 쓰지 못하는 것과 입과 눈이 돌아간 것, 근골마디의 풍증, 손목 주위의 풍증, 태풍(胎風), 두풍(頭風), 암풍(暗風), 심풍(心風), 풍으로 미친 사람 및 상한두통, 콧물이 흐르고 머리가 빙빙 돌고 눈이 가려운 것, 화독(火毒), 열독, 풍창(風瘡), 노질담적(勞疾痰績)을 아주 잘 치료한다⁶¹.

(분석) 노질(勞疾)은 노채(勞瘵)라고도 하며 현대의학의 폐결핵, 만성소모성 폐질환에 가깝다⁷. 따라서 노질(勞疾)의 담적은 기침할 때 나오는 가래를 의미하며 여기서 담적은 호흡도 분비물로 해석된다. 노질은 호흡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향약2. 「卷第十 · 瘧病論 · 痰瘧」

(원문) 《聖濟總錄》論曰，痰瘧之狀，胸中不利頭痛，振寒怯慄而不能食，食即嘔。寒去則內外皆熱，寒熱更作，心下支滿，痰績胸中，氣逆煩嘔，故謂之痰瘧⁶¹。

(번역) 『성제총록』에 “담학의 증상은 가슴 속이 편안하지 못하며 머리 아프고, 추워서 몹시 떨며 밥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하게 된다. 한기가 사라지면 몸의 안팎에 모두 열이 난다. 오한과 발열이 번갈아 나타나고 명치 아래가 그득하면서 당기고, 담이 가슴 속에 가득 쌓여 기운이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며 토하므로 담학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⁶¹.

(분석) 먹으면 토하며, 심하 부위가 그득하고, 기역(氣逆)하고 번구(煩嘔)는 위장관 안의 내용물이 비워지지 않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증상이므로 여기의 흉중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학질은 감염성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5) 『본초강목(本草綱目)』

본초1. 「卷三 下 · 百病主治藥上 · 疝瘕」

(원문) 腹病曰疝, 丸病曰瘕. 有寒氣, 濕熱, 痰積, 血滯, 虛冷. 男子奔豚, 女子育腸, 小兒木腎.

痰積 : 牽牛腎氣作痛, 同川椒 · 茴香, 入猪腎煨食, 取下惡物. 射干利積痰瘀血疝毒. 陰疝痛刺, 搗汁服, 取利, 亦丸服⁶².

(번역) 배에 병이 있는 것을 산(疝)이라 하고, 고환에 병이 있는 것을 퇴(瘕)라 한다. 원인으로서는 한기, 습열, 담적, 혈체, 허랭이 있다. 남자는 분돈(奔豚), 여자는 육장(育腸), 소아는 목신이 있다.

담적: 견우(牽牛)는 신기로 아플 때 천초 · 회향과 함께 돼지 콩팥에 넣고 잣불로 구워 먹은 다음 나쁜 물질이 설사로 나오게 한다. 사간(射干)은 담적, 어혈, 산독(疝毒)을 설사시키는데, 음낭의 산기로 찌르듯 아플 때는 찢어 낸 즙을 복용하고 설사시킨다. 환약으로도 복용한다⁶².

(분석) 오물을 설사로 나오게 하며(取下惡物), 담적을 설사시킨다(利積痰)는 것을 근거로 여기서의 담적은 위장관내의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산되는 음낭이나 전립선 등에 발생하는 증상이므로 비뇨, 생식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본초2. 「卷三 上 · 百病主治藥上 · 痰飲 · 氣滯食積 · 介禽」

(원문) 馬刀 牡蠣 魁蛤痰積. 蚌粉痰涎結於胸膈, 心腹痛日夜不止, 或乾嘔, 以巴豆炒赤, 去豆, 醋糊丸服. 鬼眼睛痰飲積及濕痰心腹痛, 燒研酒服. 五靈脂痰血凝結, 同半夏薑汁丸服⁶².

(번역) 마도 모려 괴합 담적에 쓴다. 방분 담연이 흉격에 뭉쳐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가슴과 배가 아프거나, 헛구역질을 할 때는 파두와 함께 별경게 볶은 다음 파두를 빼내고 식초를 넣고 쏜 풀에 개어 환약을 만들어 복용한다. 귀안정(鬼眼睛) 담음이 쌓인 것과 습담으로 가슴과 배가 아플 때는 달구어 간 다음 술로 복용한다. 오령지 담과 혈이 응결되었을 때는 반하 · 생강즙과 함께 환약을 만들어 복용한다⁶².

(분석) 괴합은 『향약집성방』 「卷第八十二 · 本草 · 蟲魚部上品 · 海蛤」에 의하면 “맛이 쓰고 짜며, 약성이 평이하고, 독성이 없다. 해역상기(欸逆上氣), 천식, 번만(煩滿), 흥통과 독열(毒熱)을 치료한다(味苦, 鹹, 平, 無毒, 主欸逆上氣, 喘息煩滿, 胸痛毒熱, 療陰痿. 一名魁蛤)”고 하였다. 주로 흉부 호흡기질환에 쓰이고 있다. 또한 비슷한

약성을 갖은 방분(蚌粉)이 흉격에 담연이 묻혀있다고 한 것을 근거로 여기에서 담적은 호흡도 분비물로 해석된다. 유관 증상은 호흡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본초3. 「卷三 上 · 百病主治藥上 · 喘逆 · 鯀鮑 · 穀菜」

(원문) 脂麻秸灰小兒鹽鮑, 淡豆腐蘸食. 淡豉鮑喘痰績, 同砒霜 · 枯礬丸, 水服即止. 萊菔子遇厚味即發者, 蒸研, 蒸餅丸服⁶².

(번역) 지마길회(脂麻秸灰) 어린아이가 소금을 먹고 코고는 소리가 날 때는 담백한 두부로 찍어 먹는다. 담시 코를 골아 숨이 차고 담이 쌓일 때는 비상 · 고백반과 함께 환약을 만든 다음 물로 복용하면 즉시 멎는다. 내복자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즉시 발생할 때는 찌서 간 다음 찐 떡으로 환약을 만들어 복용한다⁶².

(분석) 후천(鮑喘)은 코를 골고 숨이 차는 증상이다. 코를 골고 숨이 차는 것은 콧물이나 가래가 기도(氣道)에 쌓여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니, 여기에서 담적은 호흡도 분비물로 해석된다. 호흡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본초4. 「卷十 · 金石之四 石類下三十九種 · 礞石 宋《嘉祐》 · 〔發明〕」

(원문) 時珍曰：青礞石氣平味鹹，其性下行，陰也沈也，乃厥陰之藥. 肝經風木太過，來制脾土，氣不運化，積滯生痰，壅塞上中二焦，變生風熱諸病，故宜此藥重墜. 制以消石，其性疏快，使木平氣下，而痰績通利，諸證自除. 湯衡《嬰孩寶鑑》言礞石乃治驚利痰之聖藥. 吐痰在水上，以石末糝之，痰即隨水而下，則其沈墜之性可知. 然止可用之救急，氣弱脾虛者，不宜久服. 楊士瀛謂其功能利痰，而性非胃家所好. 如慢驚之類，皆宜佐以木香. 而王隱君則謂痰爲百病，不論虛實寒熱，概用滾痰丸通治百病，豈理也哉. 朱丹溪言一老人忽病目盲，乃大虛證，一醫與礞石藥服之，至夜而死. 吁，此乃盲醫虛虛之過，礞石豈殺人者乎. 況目盲之病，與礞石並不相干⁶².

(번역) 이시진(李時珍)이 말하기를 청몽석은 기가 평하고 맛이 짜며, 아래로 운행하는 성질이 있어 음하면서 가라앉으므로 권음(厥陰)에 쓰는 약이다. 간경풍이 너무 지나쳐 비토(脾土)를 억제하면 기가 운화하지 못하고 적체되어 담이 생겨 상초와 중초에서 막히면 변하여 풍열이 생겨 여러 가지 병이 된다. 그러므로 이 약으로 무겁게 떨어뜨려야 한다. 성질이 트이고 빠른 초석으로 제어하여 간목이 화평하고 기가 내려가도록 하면 쌓인 담이 소통되어 여러 가지 증상이 저절로 제거된다. 탕형(湯衡)의 《영해보서(嬰孩寶書)》에서는 '몽석은 경간을 치료하고 담을 소통시키는 성약이다. 또한 담을 물 위에 두고 몽석 가루를 뿌리면 담이 물을 따라 내려가니, 가라앉고 떨어뜨리는 성질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구급할 때만 써야지, 기가 약하고 비가 허한 자는 오래 복용할 수 없다.' 하였다. 양사영(楊士瀛)은 '담을 소통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성질은 위(胃) 병이 있는 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하였다. 만경풍 같은 것은 모두 목향을 좌약으로 삼는다. 그러나 왕은군(王隱君)은 '담이 온갖 병이 된다.' 하였는데, 허실과 한열을 막론하고 모두 곤담환(滾痰丸)으로 온갖 병을 두루 치료한다는 것이 어찌 이치이겠는가. 주단계(朱丹溪)는 '어떤 노인이 갑자기 눈이 멀었는데 대단한 허증이였다. 어떤 의원이 청몽석을 넣은 약을 복용하게 하자, 밤이 되어 죽었다.' 하였다. 아! 이는 멍청한 의원이 허한데다 허하게 한 잘못이지 몽석이 어찌 사람을 죽였겠는가. 더구나 눈이 먼 병은 몽석과 모두 서로 간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⁶².

(분석) 몽석(礞石)은 곤담환의 군약으로 공하(功下)시키는 대표적인 본초이다. 상초, 중초에 적체로 막힌 것을 통리(通利)하여 치료한다는 점, 곤담환을 근거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풍열(風熱) 제병(諸病)은 외사 감염으로 인한 감염성 질환의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본초5. 「卷十七 上·草之六 毒草類一十七種·藜蘆 《本經》下品·〔發明〕」

(원문) 時珍曰：噦逆用吐藥，亦反胃用吐法去痰積之義。吐藥不一，常山吐瘧痰，瓜丁吐熱痰，烏附尖吐濕痰，萊菔子吐氣痰，藜蘆則吐風痰者也。(중략) 我朝荊和王妃劉氏，年七十，病中風，不省人事，牙關緊閉。群醫束手。先考太醫吏目月池翁診視，藥不能入，自午至子。不獲已，打去一齒，濃煎藜蘆湯灌之。少頃，噫氣一聲，遂吐痰而蘇，調理而安。藥弗瞑眩，厥疾弗瘳，誠然⁶²。

(번역) 이시진은 "딸꾹질에 토하게 하는 약을 쓰고, 또한 반위(反胃)에 토하는 방법을 쓰는 것은 담적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토하게 하는 약은 한 가지가 아니다. 상산은 학질의 담을 토하게 하고, 과정(瓜丁)은 열담을 토하게 하고, 오부첨(烏附尖)은 습담을 토하게 하고, 내복자는 기담을 토하게 하고, 여로는 풍담을 토하게 한다. (중략) 우리 조정의 형화왕비(荊和王妃) 유씨(劉氏)가 70세가 되어 중풍(中風)을 앓아 인사불성이 되고 이를 악물고 열지를 앓았는데, 여러 의관들이 속수무책이었다. 선고(先考, 돌아가신 아버지)이신 태의원(太醫院) 이목(吏目, 관직명) 월지옹(月池翁)께서 진찰하였는데, 입을 앙다물고 있어 오시(午時)부터 자시(子時)까지 약을 먹이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치아 한 개를 뽑아내고 여로를 진하게 달여 낸 물을 부어 주었다. 조금 있다가 트림 소리가 나더니 마침내 담을 토해 내고 깨어났고, 조리를 하자 편안해졌다. '약을 써서 어질어질하지 않으면 그 병은 낫지 않는다.'라는 말이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였다⁶².

(분석) 열역(噦逆)과 반위(反胃)의 치료에서 토법으로 담적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토해서 나오는 것은 위장관 내용물이니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유관 증상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본초6. 「本草綱目 卷二十五 · 穀之四 造釀類二十九種. 附 : 藥粥五十三種, 藥酒七十種. · 大豆豉 《別錄》中品 · 「發明」 · 附方」

(원문) 胸喘痰積 : 凡天雨便發, 坐臥不得, 飲食不進, 乃肺竅久積冷痰, 遇陰氣觸動則發也. 用此一服即愈, 服至七八次, 即出惡痰數升, 藥性亦隨而出, 即斷根矣. 用江西淡豆豉一兩, 蒸搗如泥, 入砒霜末一錢, 枯白礬三錢, 丸綠豆大. 每用冷茶 · 冷水送下七丸, 甚者九丸, 小兒五丸, 即高枕仰臥. 忌食熱物等. 《皆效方》⁶²

(번역) 담이 쌓여 코고는 소리를 내며 숨을 헐떡이는 증상 : 비가 내리면 발생하여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폐규(肺竅)에 오랫동안 냉담(冷痰)이 쌓여서 음기를 만나 접촉하면 발생하는 증상이다. 이 약을 한 번 복용하면 낫게 되고, 7-8차례 복용하면 악담(惡痰) 몇 되가 나오는데, 약성(藥性) 역시 따라서 나오고 병의 근원이 끊어진다. 강서(江西) 지역의 담두시 1냥을 찌 내고 질게 찼은 다음 비상 가루 1돈, 고백반 3돈을 넣어 녹두만 한 환약을 만든다. 이것을 차가운 차나 찬 물로 7환씩 복용하되, 증상이 심하면 9환을, 어린아이는 5환을 복용하고, 높은 베개를 베고 똑바로 눕는다. 뜨거운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개효방》⁶²

(분석) 코골이와 천식은 비강(鼻腔) 및 기도가 가래로 인해 좁아지면 발생하는 증상인데, 폐규(肺竅)에 냉담(冷痰)이 쌓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여기서 담적은 호흡도 분비물의 뭉침으로 해석된다. 호흡기계 증상으로 배속하였다.

본초7. 「卷四十六 · 介之二 蛤蚌類二十九種. 附一種. · 魁蛤 《別錄》上品 校正 時珍曰 : 宋《嘉祐》別出蛆條, 今據郭璞說合並爲一. · 殼 · 主治」

(원문) 燒過, 醋淬, 醋丸服, 治一切血氣 · 冷氣 · 癥癖. 日華 消血塊, 化痰積. 震亨 連肉燒存性研, 敷小兒走馬牙疳有效. 時珍⁶²

(번역) 태우고 식초에 담갔다가 식초에 개어 환약을 만들어 복용하면 온갖 혈기, 냉기, 징벽(癥癖)을 치료한다. 일화 혈괴(血塊)를 삭이고, 담적(痰積)을 변화시킨다. 진형(震亨) 살까지 약성이 남도록 태우고 가루 내어 어린아이의 주마아감(走馬牙疳)에 발라주면 효과가 있다. 시진(時珍)⁶²

(분석) 괴함(魁蛤)이 혈괴(血塊)를 삭이고, 담적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징벽(癥癖), 혈괴와 담적을 같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여기의 담적은 적취의 의미라고 해석된다.

본초8. 「卷四十六・介之二 蛤蚌類二十九種. 附一種. ・魁蛤 《別錄》上品 校正 時珍曰：宋《嘉祐》別出蛆條, 今據郭璞說合並爲一. ・殼・發明」

(원문) 時珍曰：鹹走血而軟堅, 故瓦壘子能消血塊, 散痰積⁶².

(번역) 이시진은 "짠맛은 혈로 내달리면서 단단한 것을 무르게 하므로 와룡자는 혈괴를 삭이거나 담적을 흩어 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⁶².

(분석) 본초7번 조문과 같이 혈괴를 담적과 같이 언급하고 있으며 연견(軟堅)하고, 담적을 흩어지게 한다(散痰積)는 표현은 위장관 내용물을 토하거나 설사시키는 것과 치료법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담적은 적취의 의미라고 해석된다.



6) 『신간의가필용(新刊醫家必用)』

신간1. 「處方 · 二陳湯」

(원문) 痰丸, 攻瀉腸胃痰積, 及小兒食積痰. 急驚風痰盛者, 最爲要藥. 常宜合備, 但須量人虛實而用之⁶³.

(번역) 곤담환(痰丸)은 장위(腸胃)의 담적(痰積)과 어린아이의 식적담을 쳐 내린다. 급경풍(急驚風)으로 담이 성한 경우에 가장 긴요한 약이다. 늘 만들어 갖춰놓는 것이 좋으나, 다만 환자의 허실(虛實)을 헤아려 쓴다⁶³.

(분석) 곤담환이 장위(腸胃)의 담적을 설사시킨다는 것을 근거로 여기에서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소아 급경풍(急驚風)은 신경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신간2. 「處方 · 清金飲 一名杏仁五味子湯」

(원문) 若火鬱嗽謂痰鬱, 火邪在中, 宜開鬱消痰, 用訶子皮 便香附 瓜蒌仁 半夏曲 海石 青黛 黃芩, 爲末, 蜜調爲丸, 噙化, 仍服, 前補陰降火湯藥, 失治則成勞. 若痰積食積, 作咳嗽者, 用香附 瓜蒌仁 貝母 海石 青黛 半夏麴 軟石膏 山楂子 枳實 薑炒黃連, 爲末, 蜜調噙化. 若勞嗽見血, 加阿膠 當歸 芍藥 天門冬 知母 貝母 桑白皮, 亦於前肺虛陰虛二條擇用. 大抵欬嗽見血, 多是肺受熱, 邪氣得熱而變爲火, 火盛而陰血不得安寧, 從火上升. 故治宜瀉火滋陰. 忌用人參等甘溫補氣之藥. 然亦有氣虛而欬血者, 則宜用人參 黃耆 款冬花等藥, 但此等證不多耳. 因欬而有痰者, 欬爲重, 主治在肺, 因痰而致欬者, 痰爲重, 主治在脾. 但是食積成痰, 痰氣上升, 以致咳嗽, 只治其痰消其積而欬自止, 不必用肺藥以治欬也⁶³.

(번역) 화(火)가 몰려서 기침이 나는 것을 담울(痰鬱)이라 하는데 화사(火邪)가 속에 있기에 몰린 것을 터주고 담을 삭여야 하므로, 가자피 변향부(便香附) 과루인 반하국 해석(海石) 청대 황금을 가루 내어 꿀과 개어 환을 만들어 입에 머금고 녹여 먹은 다음 앞의 음을 보하여 화를 내리는 탕약을 복용하는데, 치료시기를 놓치면 노병(勞病)이 된다. 담적(痰積)이나 식적으로 기침이 날 때에는 향부 과루인 패모 해석 청대 반하국 연 석고 산사자 지실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을 가루 내어 꿀에 갠 다음 입에 머금고 녹여먹는다. 노수(勞嗽)에 피가 나올 때에는 아교 당귀 작약 천문동 지모 상백피를 더 하고, 또한 앞의 폐허(肺虛)를 치료하는 것과 음허(陰虛)를 치료하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쓴다. 대체로 기침할 때 피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폐가 열을 받고 폐에 있던 사기가 열을 얻어 화로 변한 것인데, 화가 성하면 음혈(陰血)이 안정되지 못하여 화를 따라 상승한다. 그러므로 이를 치료할 때에는 화를 끌어내리고 음을 자운하는 것이 좋다. 인

삼 등의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여 기를 보해주는 약재를 꺼린다. 그러나 기가 허하여 기침 때 피가 나는 경우에는 인삼 황기 관동화 등의 약재를 쓰는 것이 좋으나, 다만 이러한 증상은 흔하지 않다. 기침 때문에 담이 생겼을 때에는 기침이 더 위중하므로 폐를 위주로 하여 치료하고, 담 때문에 기침이 날 때에는 담이 더 비중을 차지하므로 비(脾)를 위주로 하여 치료한다. 다만 식적으로 담이 생기고 담기(痰氣)가 상승하여 기침이 날 때에는 다만 담을 치료하고 적(積)을 삭여주면 기침은 저절로 그치게 되니 반드시 폐를 치료하는 약을 사용하여 기침을 치료할 필요는 없다⁶³.

(분석) 담적을 식적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침에 관한 치료에서 식적으로 담이 생기고 기침이 날 때에는 적(積)을 삭여주면 기침은 저절로 그치게 되니 반드시 폐를 치료하는 약을 사용하여 기침을 치료할 필요는 없다는 점(食積成痰, 痰氣上升, 以致咳嗽, 只治其痰消其積而效自止, 不必用肺藥以治效也)을 근거로 여기서의 담적은 호흡기의 분비물이 아니라 식적을 포괄하는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해수(咳嗽)는 호흡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7) 『여과경론(女科經綸)』

여과1. 「卷三 胎前證·上 · 胎前證·上」

(원문) 單養賢曰:是心肺虛熱, 或痰積於胸. 若三月而煩者, 但熱而已; 若痰飲而煩者, 吐涎惡食, 煩躁不安也. 大凡妊娠既停痰積飲, 又寒熱相搏, 氣鬱不舒, 或煩躁, 或嘔吐涎沫, 劇則胎動不安, 均爲子煩也⁶⁴.

(번역) 단양현(單養賢)이 이르기를 "이것은 심폐(心肺)의 허열이나 담이 흉부에 쌓인 것이다. 임신 3개월에 번증(煩症)이 있는 것은 단지 열이 있을 뿐이다. 담음으로 번증이 있는 것은 끈끈한 침을 토하고 음식을 먹기 싫어하며 번조 불안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임신한 상태에서 이미 담음이 정체되어 쌓이고 또한 한(寒)과 열(熱)이 서로 충돌하여 기가 울체되어 운행되지 않아 번조가 생기거나 끈적끈적한 침과 거품을 토하게 되며 극심한 경우에는 태동불안(胎動不安)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모두 자번(子煩)에 해당된다."고 하였다⁶⁴.

(분석) 담음으로 번증이 있는 것은 끈끈한 침을 토하고 음식을 먹기 싫어한다고 하였다. 흉부에 쌓인 담(痰積於胸)이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여기에서 흉부는 가슴부위의 위장관인 식도 부위에 해당되며,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유발되는 증상인 자번(子煩)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여과2. 「卷七 崩帶門 · 崩帶 · 帶下屬濕熱鬱下焦帶脈」

(원문) 汪石山曰:帶證色有赤白之分, 病有氣血之異, 與痢相似, 盡由中氣虧敗, 運動失常, 致濕熱鬱結於下焦帶脈之分, 滲流而下, 故名帶下. 治當先清濕爲主, 必須却厚味, 以防濕熱之氣. 故丹溪論赤白帶下, 由七情內傷, 使下元虛憊, 致濕熱痰積, 乘虛下流; 叔和謂崩中日久爲白帶. 崩中日久者, 下元虛憊之意. 治法羅太無謂十棗湯 · 神佑丸 · 玉燭散皆可用. 但虛弱者不可峻攻, 丹溪用升提法, 眞妙諦也⁶⁴.

(번역) 왕석산(汪石山)이 말하기를 "대증(帶證)의 빛깔은 적(赤)과 백(白)으로 나누어지고, 병증에는 기혈에 따른 차이가 있어 이질과 비슷하다. 모두 중기(中氣)의 휴폐(虧敗)로 기능(運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습열이 하초의 대맥(帶脈) 부분에 울결되고 배어나와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하라고 한다. 치료는 응당 먼저 청습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고 반드시 후미를 멀리하여 습열의 기운을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단계는 적백대하가 칠정내상(七情內傷)으로 인해 하원(下元)이 허비(虛憊)하여 습열과 담적이 허한 틈을 타서 아래로 흘러내려 생긴 것이라 주장하였고, 왕숙화(王叔和)는 붕중(崩中)이 오래 지속되어 백대가 야기된 것이라 하였다. 붕증이 오래된다는 것은 하원

이 허(虛)하고 피곤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치법에 있어서 나지제(羅知悌)는 십조탕 · 신우환 · 옥촉산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허약한 경우 강한 약으로 공격할 수 없다. 주단계는 승제법(升提法)을 활용하였는데, 참으로 탁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⁶⁴.

(분석) 대하의 치료에 관하여, 후미(厚味)와 습열의 기운을 막아야 한다는 점, 습열과 담적이 아래로 흘러내려 생긴 것이라는 점, 습열의 병리인 이질과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여기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대하는 비뇨생식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여과3. 「卷七 崩帶門 · 崩帶 · 帶下屬胃中濕痰滲入膀胱」

(원문) 朱丹溪曰:赤屬血, 白屬氣屬痰, 俱是胃中痰積流下, 滲入膀胱. 宜用升舉, 無人知此. 肥人多屬濕痰, 瘦人帶病少, 如有, 屬熱痰, 用半夏 · 南星 · 蒼朮 · 海石 · 炒黃柏 · 青黛 · 川芎 · 椿樹皮之屬⁶⁴.

(번역) 주단계가 이르기를 "적백대(赤帶下)는 혈(血)에 속하고, 백대하(白帶下)는 기나 담에 속하는데, 모두 위중(胃中)의 담적이 아래로 흘러 내리면서 방광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승거(升舉)시키는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아는 사람이 없다. 비만한 사람은 대부분 습담에 속하고, 야윈 사람은 대하병이 적은 편이며 만약 있다면 열담에 속해서 반하 · 남성 · 창출 · 해석 · 초황백 · 청대 · 천궁 · 춘수피(椿樹皮) 등을 사용한다."고 하였다⁶⁴.

(분석) 위 안의 담적(胃中痰積)을 근거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대하는 비뇨생식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8) 『경악전서(景岳全書)』

경악1. 「卷之十四 性集 雜證謨・瘧疾・辨古 共四條」

(원문) 嚴用和曰: "或乘涼飲冷, 當風臥濕, 飢飽失時, 致脾胃不和, 痰積中脘, 遂成此疾, 所謂'無痰不成瘧'也"⁶⁵.

(번역) 엄용화(嚴用和)는 혹 서늘한 바람을 쐬거나 찬 것을 마시거나, 바람맞고 습한 곳에 눕고, 제 때 식사하지 않으면 비위불화(脾胃不和)를 일으켜 담이 중완(中脘)에 쌓여서 결국 이 병이 되니, 이른 바 '담이 없으면 학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⁶⁵.

(분석) 비위불화(脾胃不和)로 중완에 담이 쌓인다고 하였다. 비(脾)는 운화(運化)를 주관하고 위(胃)는 수납(受納)을 주관하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상호 배합함으로써 비위계통을 형성하여 소화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비가 운화를 하지 못하면 위가 수납을 못하며 위가 수곡(水穀)을 부숙(腐熟)하지 못하게 되면 비가 운화를 못 한다³. 따라서 비위불화하면 위장 내에 수곡이 정체되어 쌓이게 되므로 이를 담적중완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의 담적은 위장관 내용물의 병리적 쌓임으로 해석된다. 학질(瘧疾)은 감염성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경악2. 「卷之二十五 心集 雜證謨・腰痛・述古 共三條」

(원문) 丹溪治法曰: "腎虛腰痛, 用杜仲龜板・黃柏・知母・枸杞・五味之類, 猪脊髓丸服. ○瘀血, 用補陰丸加桃仁・紅花. ○濕熱, 蒼朮・杜仲・黃柏・川芎之類. ○痰積作痛, 二陳加南星, 加快氣藥佐之, 使痰隨氣運. ○腰曲不能伸者, 鍼人中立愈"⁶⁵.

(번역) 단계(丹溪)는 치법에서 "신허요통에는 두중・귀판・황백・지모・구기・오미자의 종류(五味之類)를 저척수(猪脊髓)로 환을 만들어 복용한다. ○어혈요통에는 보음환가(加) 도인・홍화를 쓴다. ○습열요통에는 창출・두중・황백・천궁의 종류(川芎之類)를 쓴다. ○담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에는 이진탕 가 남성에 쾌기약(快氣藥)을 가해 좌(佐)해서 담이 기를 따라 운(運)하도록 한다. ○허리가 굽어 굴신이 불능한 경우는 인중에 자침하면 낫는다"고 하였다⁶⁵.

(분석) 담적으로 인하여 요통이 발생되었다. 유주작통(流注作痛)의 성격을 근거로 여기서의 담적은 일반적 의미로서 담음의 뜻인 수액대사나 영양대사의 병리적 산물로 해석된다. 유발 증상인 요통은 근골격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경악3. 「卷之三十一 貫集 雜證謨・痰飲・先君吐法記」

(원문) 斯時也，實將弱冠，漸已有知，恐其吐傷，因微諫曰："吐本除痰，豈諸病皆可吐耶？且吐傷元氣，人所共知，矧以衰年，能無慮乎？"先君曰："吐以治痰，爾所知也，吐治百病，爾知之乎？吐能傷氣，爾所知也，吐能生氣，爾亦知乎？余當爲爾細談之。夫先哲中之善治痰績者，無如子和之三法，及丹溪之倒倉"⁶⁵。

(번역) 당시 약관의 나이로 점차 지식이 쌓이던 나는 토하여 상하는 것을 우려하여 "토(吐)는 본래 담을 없애는데, 어떻게 제병(諸病)에 모두 토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토가 원기를 상함은 모든 사람이 아는데, 연로한데도 걱정이 없겠습니까?"고 간청했다. 선친은 "네가 토가 담을 치료함은 알지만, 토가 백병을 치료함을 아느냐? 네가 토가 상기(傷氣)함은 알지만, 토가 생기(生氣)함을 아느냐? 너를 위해 자세히 말하겠다. 담적을 잘 치료하는 선철의 방법 중에는 자화(子和)의 삼법(三法)과 단계(丹溪)의 도창(倒倉)이 가장 좋다"⁶⁵。

(분석) 담적을 잘 치료하는 선철(先哲)의 방법 중에 자화(子和)의 三法과 단계(丹溪)의 도창법(倒倉法)이 가장 좋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위장관의 내용물을 비우는 치료이므로 여기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담(痰)으로 발생하는 백병에 관한 치법을 논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상은 백병으로 분류하였다.

경약4. 「卷之三十一 貫集 雜證謨·痰飲·述古治 共七條」

(원문) 徐東皋曰："嚴氏云：'人之氣順，則津液通流，決無痰患。古方治痰，多用汗·下·溫·利之法，不若以順氣爲先，分導次之。氣順則津液流通，痰飲運下，自小便中出矣'，此則嚴氏亦有所見而云然也。《玉機微義》云：'順氣特一法耳，要觀痰之深淺。有痰績膠固，氣道因之而不得順，宜先逐去積痰，然後氣可得順，豈可專主理氣一法？'。愚謂有理氣而痰自順者，治其微也；有逐痰而氣方暢者，治其甚也，二者皆治痰之要也，不可偏廢者也。但看痰與氣孰輕而孰重，施治有可急而可緩，故曰'逐痰·理氣，有所先後'"⁶⁵。

(번역) 서동고(徐東皋)가 이르기를 "엄씨(嚴氏)는 '인체의 기가 순하면 진액이 유통하여 절대 담의 병이 없다. 고방의 치담(治痰)에 다용한 한(汗)·하(下)·온(溫)·리(利)의 치법은 순기를 우선한 다음에 분도(分導)하는 것만 못하다. 기가 순하면 진액이 유통하여 담음이 아래로 내려가서 소변을 통해 나온다고 하니, 이 역시 엄씨의 소견이 있는 말이다. 『옥기미의(玉機微義)』에서는 '순기도 하나의 방법일 뿐으로, 담의 심천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담적이 끈끈하게 굳음으로 인해 기도(氣道)가 순하지 못하면 마땅히 우선 쌓인 담을 몰아 제거한 후에야 기가 순할 텐데, 어떻게 이기(理氣) 한 가지 법만을 오로지 하겠는가?'고 하였다. 나는 '이기(理氣)하여 담이 저절로 순하는 경우는 미

(微)를 치료한 것이고 축담(逐痰)해야 기가 창(暢)하는 경우는 심(甚)을 치료한 것인데, 2가지 모두 치담의 요점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다만 담과 기 중에 무엇이 가볍고, 무거운지를 보면 치료에 완급이 있으므로 '축담과 이기(理氣)에는 선후가 있다'고 말한다"고 하였다⁶⁵.

(분석) 담음을 주제로 치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기가 순하면 진액이 유통하여 담음이 운하(運下)해서 소변을 통해 나간다고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광의의 담음 개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담적은 수액대사나 영양대사의 병리적 산물로의 의미로 해석된다. 담적 유관 증상은 일반적인 질병에 관한 치법을 논하고 있으므로 백병으로 분류하였다.

경약5. 「卷之四十九 大集 本草正 下 · 穀部 · 神麴」

(원문) 味甘, 氣平, 炒黃入藥. 善助中焦土臟, 健脾煖胃, 消食下氣, 化滯調中. 逐痰績, 破癥瘕, 運化水穀, 除霍亂 · 脹滿 · 嘔吐. 其氣腐, 故能除濕熱; 其性澁, 故又止瀉痢. 療女人胎動因滯, 治小兒腹堅因積. 若婦人產後欲回乳者, 炒研酒服二錢, 日二即止, 甚驗. 若閃挫腰痛者, 淬酒溫服, 最良⁶⁵.

(번역) 맛은 달고, 기는 평하며 누렇게 볶아서 약에 들어간다. 중초인 토장(土臟)을 잘 도와서 건비(健脾) 완위(煖胃)하고 음식을 소화시켜 내려 보내고, 화체조중(化滯調中)한다. 담적을 몰아내고 징가(癥瘕)를 파하며 수곡을 운화하여 곽란 · 창만 · 구토를 제거한다. 발효시켜 그 기가 부숙(腐熟)했기 때문에 습열을 없앨 수 있고, 그 성이 삼(澁)하기 때문에 설사를 그치게 한다. 여성의 체(滯)로 인한 태동(胎動)을 치료하고, 소아의 적(積)으로 인한 배가 똥똥한 것을 치료한다. 산후에 회유(回乳)하려는 경우는 볶은 신곡을 갈아 하루 2번 술로 2돈씩 복용하면 바로 그치니 매우 좋다. 만약 좌섬요통의 경우는 담금질한 술로 온복하면 가장 좋다⁶⁵.

(분석)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서 아래로 내려 보내고(消食下氣), 화체조중(化滯調中)하며, 담적을 몰아낸다는 문구를 근거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관련 증상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경약6. 「卷之五十四 書集 古方八陣 · 和陣 · 和中丸」

(원문) 治久病厭厭不能食, 而臟腑或秘或瀉, 此皆胃虛所致. 常服之, 和中理氣, 消痰績, 去濕滯, 厚腸胃, 進飲食. 白朮(麩炒), 二兩四錢, 厚朴(薑製), 二兩, 陳皮, 一兩六錢, 半夏(湯泡), 一兩, 枳實 · 檳榔, 五錢, 炙甘草, 四錢, 木香, 二錢. 上用生薑自然汁,

浸蒸餅爲丸桐子大，每服三四十丸，食遠溫水送下⁶⁵。

(번역) 오랜 병으로 음식을 싫어하고 잘 먹지 못하면서 변비가 있거나 대변이 무른 경우를 치료하는데, 이는 모두 위허(胃虛)의 소치이다. 이를 상복하면 비위를 온화하게 하고 이기(理氣)하여 담적을 줄어들게 하고 습체를 제거하며 장위(腸胃)를 두텁게 하고 음식을 잘 먹게 한다. 백출(밀기울로 초) 2냥 4돈, 후박(생강법제) 2냥, 진피 1냥 6돈, 반하(탕포) 1냥, 지실·빈랑 각5돈, 자감초 4돈, 목향 2돈. 생강즙에 담가 불린 찐 떡으로 오동나무씨 크기의 환을 만들어 빈속에 온수로 30, 40환씩 삼킨다⁶⁵.

(분석) 화중환(和中丸)을 설명하면서 위허의 소치를 치료한다고 했다. 수곡을 수납하는 위의 기능이 허해지면 위장 안에 수곡이 부속되지 않고, 이로 인해 음식을 싫어하고 잘 먹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화중환이 담적을 줄어들게 하며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한다고 하였으니 여기서의 담적은 위장관 안에 내용물의 병리적 쌓임으로 해석된다. 유관 증상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경약7. 「卷之五十五 字集 古方八陣 · 攻陣 · 三稜丸」

(원문) 治血癥 · 血瘕，食積 · 痰滯。三稜 · 莪朮(醋浸炒)，各二兩，半夏 · 青皮 · 麥芽(炒)，各一兩。上共用好醋一鍾，煮乾焙爲末，醋糊丸桐子大，每服四十丸，淡醋湯下。痰績，薑湯下⁶⁵。

(번역) 혈징(血癥)·혈가(血瘕)와 식적·담체를 치료한다. 삼릉·봉출(식초에 담가 초) 각2냥, 반하·청피·맥아(초) 각1냥. 모두 좋은 식초 1그릇으로 삶아서 배건(焙乾) 후 가루내어 식초로 쓴 풀로 오동나무씨앗 크기의 환을 만들어 묽게 달인 식초로 40환씩 복용한다. 담적의 경우는 생강탕으로 내린다⁶⁵.

(분석) 담적의 경우는 생강탕으로 내린다고 하였는데, 손사막의 『천금방(千金方)』에 의하면 생강이 구가(嘔家)의 성약(嘔家多服生薑，此是嘔家聖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중(胃中)의 담음, 식적 등의 병리적 산물로 인하여 생강을 써야할 상황을 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상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배속하였다.

경약8. 「卷之五十五 字集 古方八陣 · 攻陣 · 茶調散」

(원문) 吐除痰績。瓜蒂，二錢，好茶，一錢。上爲末，每服二錢，薑汁調服⁶⁵。

(번역) 담적을 토하여 제거(吐除)한다. 과체 2전, 좋은 차(茶) 1전. 가루로 해서 다진

즙(蠶汁)으로 2돈씩 조복한다⁶⁵.

(분석) 담적을 토하여 제거한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9)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침구1. 「積聚」

(원문) 痰積成塊 肺俞 百壯, 期門 三壯⁶⁶.

(번역) 담적으로 덩어리가 생긴 경우 폐수에 100장 뜬다. 기문에 3장 뜬다⁶⁶.

(분석) 성괴(成塊)와 적취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여기의 담적은 적취로 해석한다.



10) 『동의보감(東醫寶鑑)』

동의1. 「內景篇卷之二 · 痰飲 · 痰病有十 · 鬱痰 · 霞天膏」

(원문) 治虛痰，老痰，稠粘膠固於胸臆，依附盤泊於腸胃，當用此膏吐瀉，不致虛損。如癰癆鼓噎，於補虛藥中加之，以去痰績，可收萬全。服此，比之倒倉更隱。凡治實痰，新痰，用南星 · 半夏燥之，橘紅 · 枳殼散之，猪苓 · 茯苓滲之，黃芩 · 黃連降之，巴豆 · 附子流通之，竹瀝 · 瓜蒌潤下之⁶⁷。

(번역) 허담(虛痰)과 노담이 가슴에 끈적끈적하게 엉겨붙고 장위(腸胃)에 붙어 있는 것을 치료할 때는 이 고약을 써서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켜야 허손에 이르지 않는다. 가령 나병(癰病) · 노채 · 고창(鼓脹) · 열격을 치료할 때 허를 보하는 약에 이 약을 더하여 담적(痰積)을 없애면 만전을 기할 수 있으니 이 약을 먹는 것이 도창법(倒倉法)에 비해 더 알맞은 방법이다. 실담(實痰)이나 새로 생긴 담(痰)을 치료하려면 남성과 반하로 말리고, 굴홍과 지각으로 흠으며, 저령과 복령으로 빼주고, 황금과 황련으로 내리며, 파두와 부자로 통하게 하고, 죽력과 과루로 적셔서 내린다⁶⁷。

(분석) 담음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하면서 담병을 두루두루 치료할 수 있는 하천고에 관한 내용이다. 장위에 붙어 있는(依附盤泊於腸胃) 담적을 제거하기 위해 하천고를 써서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을 근거로 여기의 담적은 위장관 내에 있으면서 병리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해석된다. 담적으로 유발되는 나병(癰病), 노채(勞瘵), 고창, 열격 등 다양한 증상에 관한 치법이므로 증상은 백병으로 분류하였다.

동의2. 「內景篇卷之二 · 痰飲 · 痰病有十 · 氣痰 · 潤下丸」

(원문) 治痰績氣滯，及痰嗽，降痰甚妙。陳皮 一斤(去白)，鹽 二兩(以水化，同煮爛焙燥)，甘草 二兩(炙)。右爲末，湯浸蒸餅和丸梧子大，白湯下三五十丸。· 「必用」⁶⁷

(번역) 담이 쌓인 것, 기가 막힌 것과 담수(痰嗽)를 치료한다. 담을 내리는 아주 묘한 효과가 있다. 진피 1근(흰 부분을 제거한 후, 소금 2냥을 물에 녹인 것에 푹 달여서 불에 쪄서 말린 것), 감초(구운 것) 2냥. 이 약들을 가루내어 끓인 물에 담갔던 증편과 반죽하여 오자대로 환을 만든다. 끓인 물로 30-50알씩 먹는다. 《필용》⁶⁷

(분석) 담적이 담수(痰嗽)를 유발하는 것을 근거로 여기의 담적은 호흡도 분비물의 쌓임으로 해석된다. 호흡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동의3. 「內景篇卷之二 · 痰飲 · 痰病不卒死」

(원문) 大凡病久淹延, 卒不死者, 多因食積, 痰飲所致. 何以然者, 盖胃氣亦賴痰積所養, 飲食雖少, 胃氣卒不便虛故也. 《丹心》⁶⁷

(번역) 대개 병이 오래되었으나 갑자기 죽지 않는 것은 대부분 식적이나 담음으로 인한 것이다. 위기(胃氣)는 담음·식적에 의해서도 길러지므로 비록 적게 먹더라도 위기(胃氣)가 갑자기 허해지지 않는 때문이다. 《단심》⁶⁷

(분석) 위기(胃氣)가 담음과 식적으로부터 양분(養分)을 받는다고 하였다. 적게 먹더라도 담음과 식적이 있으면 그로부터 영양공급을 받기 때문에 위기(胃氣)가 갑자기 허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양분(養分)을 줄 수 있는 것은 위장관 내용물이므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 내용물의 쌓임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병을 논하고 있으니 유발 증상은 백병으로 분류하였다.

동의4. 「內景篇卷之二 · 痰飲 · 痰飲通治藥 · 千金指迷丸」

(원문) 治一切痰飲爲患. 半夏麴 二兩, 白茯苓(剉, 虛人乳汁拌蒸, 瘦人縮砂同酒浸蒸, 去縮砂, 又生地黃汁浸蒸) · 枳殼(用麥麩醋水炒) 各一兩, 風化硝 二錢半. 右爲末, 薑汁糊和丸梧子大, 每服三五十丸, 薑湯下. 旬日以往, 大便溏滑, 是潛消痰積之驗也. 《入門》⁶⁷

(번역) 모든 담음으로 생긴 병을 치료한다. 반하곡 2냥, 백복령(썰어서 허한 사람은 사람의 젖에 버무려 찌고, 마른 사람은 사인과 함께 술에 담갔다 찌서 사인은 제거한 후, 또 생지황즙에 담갔다 찌는 것) · 지각(밀기울과 함께 식초를 탄 물에 축여 볶은 것) 각 1냥, 풍화초 2.5돈. 이 약들을 가루내어 생강즙을 넣어 쏘 풀로 반죽하여 오자대로 환을 만든다. 30-50알씩 생강 달인 물로 먹는다. 10일이 지나면 대변이 묽어진다. 이것은 담적이 줄어든 증거이다. 《입문》⁶⁷

(분석) 천금지미환(千金指迷丸)을 생강달인 물로 먹고 10일 정도 지나면 대변이 묽어지는데, 이것이 담적이 줄어든 증거라고 하였다. 대변이 묽어졌다는 것은 하법(下法)을 썼다는 의미이며, 처방을 보더라도 생지황, 지각, 풍화초 등으로 위장관 안의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모든 담음으로 생긴 병에 관한 치법이므로 백병(百病)으로 분류하였다.

동의5. 「內景篇卷之二 · 痰飲 · 痰飲通治藥 · 滾痰丸」

(원문) 治濕熱痰積，變生百病。大黃(酒蒸)·黃芩(去朽) 各八兩。青礞石 一兩(同焰硝一兩入罐內蓋定，鹽泥固濟曬乾，火煨紅，候冷取出，以礞石如金色爲度)，沈香 五錢。右爲末，滴水和丸梧子大，茶清，溫水任下四五十丸。服藥必須臨睡，送下至咽，即便仰臥，令藥在咽膈之間徐徐而下。漸逐惡物入腹入腸，方能見效⁶⁷。

(번역) 습열로 인한 담적(痰積)이 변해서 된 모든 병을 치료한다. 대황(술에 찐 것)·황금(썩은 부분을 제거한 것) 각 8냥. 청몽석 1냥(염초 1냥과 함께 단지에 넣고 뚜껑을 덮어서 소금기 있는 진흙으로 단단하게 발라서 벽에 말린 후, 청몽석이 금색이 될 정도로 불에 별경게 달구었다 식혀서 꺼낸 것), 침향 5돈. 이 약들을 가루내어 물을 떨어뜨리면서 반죽하여 오자대로 환을 만든다. 찻물이나 따뜻한 물로 40-50알씩 먹는 데 반드시 잘 때 먹어야 한다. 약을 삼킨 후에도 곧 반듯이 누워 약이 목구멍과 흉격 사이에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한다. 점차 나쁜 것들을 배와 장(腸)으로 몰아내면 효과를 보게 된다⁶⁷.

(분석) 곤담환(滾痰丸)은 담적(痰積)이 변해서 된 모든 병을 치료하는데, 점차 나쁜 것들을 배와 장(腸)으로 몰아내면 효과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곤담환(滾痰丸)은 대황, 청몽석 등의 처방 구성으로 보아 하법(下法)의 치료제이므로 위장관 내용물을 밖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따라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관련 증상은 백병으로 분류하였다.

동의6. 「內景篇卷之二·痰飲·單方·半夏麴」

(원문) 痰分之病，半夏爲主。然必造而爲麴。又入霞天膏，白芥子·薑汁·礬湯·竹瀝·造麴。治痰積沈痼者，自能使腐敗，隨大小便出，或散而爲瘡，此半夏麴之妙也⁶⁷。

(번역) 담병(痰病)에는 반하를 주로 쓰는데, 반드시 반하국을 만들어 써야 한다. 또 하천고·백개자·생강즙·백반 달인 물·죽력을 넣고 반하국을 만들면 담(痰)이 쌓여 생긴 고질병을 치료하는데, 담이 저절로 썩어 대소변으로 나가거나, 흩어져 창(瘡)이 생기기도 하니 이것이 반하국의 묘한 효과이다⁶⁷.

(분석) 담이 쌓여 생긴 고질병을 치료하는데(痰積沈痼) 담이 저절로 썩어 대소변으로 나가거나 흩어져 창(瘡)이 생기는 것은 위장관내의 내용물이 대사를 거쳐 수분은 소변으로 나머지는 대변으로 나가고, 일부는 조직에 남아 질병을 발생시키므로 여기서 담적은 수분대사 또는 영양대사의 병리적 산물로 해석된다. 관련 증상은 고질병(痼)으로 일반적인 담으로 생긴 병(痰分之病)에 관한 내용이므로 백병으로 분류하였다.

동의7. 「內景篇卷之二 · 痰飲 · 單方 · 青礞石」

(원문) 治食積痰. 同焰硝, 火煨服, 能利痰積, 從大便而出. 作丸服, 或末服皆可. 《入門》⁶⁷

(번역) 식적담을 치료한다. 염초와 함께 불에 달구어 복용하면 담적(痰積)이 대변으로 빠져나온다. 환제로 먹거나 산제로 먹는 데 모두 좋다. 《입문》⁶⁷

(분석) 담적(痰積)이 대변으로 빠져나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관련 증상이 적체(積滯)이므로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동의8. 「內景篇卷之三 · 胞 · 帶下治法」

(원문) 帶與漏, 俱是胃中痰積, 流下滲入膀胱, 出於大小腸, 宜升提之. 甚者上必用吐, 下用二陳湯方見痰飲, 加蒼朮 · 升麻 · 柴胡, 或蒼柏樗皮丸. 《丹心》⁶⁷

(번역) 대하와 누하(漏下)는 모두 위(胃) 속에 쌓인 담이 흘러내려 방광으로 스며들고 대장 · 소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마땅히 끌어올려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위로는 반드시 토법을 써야 하고, 아래로는 이진탕. 처방은 담음문에 나온다. 창출 · 백출 · 승마 · 시호를 넣어 쓰거나 창백저피환을 써야 한다. 《단심》⁶⁷

(분석) 위(胃) 속에 쌓인 담을 근거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대하와 누하는 비뇨생식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동의9. 「內景篇卷之四 · 大便 · 泄瀉諸證 · 痰泄 · 海青丸」

(원문) 治痰積泄瀉. 海粉 一兩, 青黛 三錢, 黃芩 二錢, 神麴 五錢. 右爲末, 別以神麴作糊, 和丸梧子大, 空心, 白湯下二三十丸. 《入門》⁶⁷

(번역) 담적으로 생긴 설사를 치료한다. 해분 1냥, 청대 3돈, 황금 2돈, 신국 5돈. 이 약들을 가루내어 신국으로 쏜 풀로 반죽하여 오자대로 환을 만든다. 꿀인 물로 20-30알씩 빈속에 먹는다. 《입문》⁶⁷

(분석) 담적으로 생긴 설사는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이 장을 자극하여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동의10. 「外形篇卷之三・胸・心胃痛宜吐」

(원문) 多飲鹽湯, 以鵝翎探吐痰績, 痛即止. 《醫鑑》⁶⁷

(번역) 소금 끓인 물을 많이 먹고 거위 깃으로 목구멍을 더듬어서 담적을 토하게 하면 통증이 멎는다. 《의감》⁶⁷

(분석) 담적을 토하게 한다는 것을 근거로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유발 증상은 심위통(心胃痛)인데, 토했을 때 통증이 멎는다고 했으니 심장질환 보다는 기능성소화불량이나 역류성식도염에서 볼 수 있는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동의11. 「外形篇卷之三・腹・腹痛有六・痰飲腹痛・芎朮散」

(원문) 治痰績腹痛. 川芎・蒼朮・香附・白芷 各等分. 右爲末, 薑汁磨木香點熱湯, 調下二錢. 《入門》⁶⁷

(번역) 담적으로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천궁・창출・향부자・백지 각각 같은 양. 이 약들을 가루 낸다. 이것을 생강즙에 목향을 갈아서 뜨거운 물에 섞은 것에 2돈씩 타서 먹는다. 《입문》⁶⁷

(분석) 담적복통은 담적설사와 마찬가지로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인한 복통으로 해석된다. 복통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동의12. 「外形篇卷之三・腹・腹痛有六・痰飲腹痛・四合湯」

(원문) 治痰績, 氣滯腹痛. 陳皮・半夏 各一錢半, 厚朴・枳殼・赤茯苓・紫蘇葉・香附子・鬱金 各七分, 甘草 五分. 右剉, 作一貼, 薑 五片, 水煎服. 《醫鑑》⁶⁷

(번역) 담적과 기체로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진피・반하 각 1.5돈, 후박・지각・적복령・자소엽・향부자・울금 각 7푼, 감초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5쪽을 넣고 물에 달여 먹는다. 《의감》⁶⁷

(분석) 담음복통(痰飲腹痛)에 관한 하위 내용에서 사합탕(四合湯)이 담적과 기체로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복통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동의13. 「外形篇卷之四・前陰・諸疝治法」

(원문) 疝痛屬濕熱痰積，流下作病，因寒鬱而發也. 《丹心》⁶⁷

(번역) 산통은 습열·담적이 밑으로 흘러내려 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으로 울체되면 발작한다. 《단심》⁶⁷

(분석) 담적이 전음질환에서 산통(疝痛)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담적이 흘러 내려가면서 병을 일으킨다고 하였는데 하복부로 내려가면서 병을 일으키는 것은 소화관을 따라서 내려가는 분변과 장내미생물, 병원성 세균 등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담적 유관 증상인 산통은 비뇨생식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동의14. 「雜病篇卷之六・積聚・積聚治法」

(원문) 牽牛・甘遂，治水積，雄黃・膩粉，治痰積⁶⁷.

(번역) 전우·감수는 수적(水積)을 치료하고, 옹황·경분은 담적을 치료한다⁶⁷.

(분석) 적취문(積聚門)에 인용되어 여기서의 담적은 적취로 해석한다.

동의15. 「雜病篇卷之六・積聚・積聚治法」

(원문) 又云三稜・蓬朮，治血積. 香附・枳實，治食積. 山查・阿魏，治肉積. 海粉・礞石，治痰積. 雄黃・白礬，治蟲積. 乾薑・巴豆，治寒積. 黃連・大黃，治熱積. 《丹心》⁶⁷

(번역) 또, "삼릉·봉출은 혈적을 치료한다. 향부자·지실은 식적을 치료한다. 산사·아위는 육적을 치료한다. 해분·몽석은 담적을 치료한다. 옹황·백반은 충적을 치료한다. 건강·파두는 한적을 치료한다. 황련·대황은 열적을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단심》⁶⁷

(분석) 적취문(積聚門)에 인용되어 여기서의 담적은 적취로 분류하였다.

동의16. 「湯液篇卷之二・蟲部・蚌蛤 바다굴근조개・蚶 살조개」

(원문) 瓦礫子，能消血塊，次消痰積. 《正傳》⁶⁷

(번역) 와룽자는 혈괴(血塊)를 없앨 수 있고, 담적(痰積)을 없앨 수 있다. 《정전》⁶⁷

(분석) 혈괴(血塊)와 같이 언급하는 맥락에서 여기서 담적은 적취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동의17. 「湯液篇卷之三・石部・唐 青礞石」

(원문) 色靑堅硬，有小金星．性好沈墜，得焰硝能利濕熱痰積，從大腸而出．取礞石與焰硝等分，入罐內，鹽泥固濟，火煨一日，取出細研如粉用．《入門》⁶⁷

(번역) 푸른색이고 단단하며 작은 황금별 무늬가 있다. 잘 가라앉는 성질이 있으니 염초(焰硝)와 함께 쓰면 습열과 담적을 대장을 통하여 내보낸다. 청몽석과 염초 같은 양을 항아리에 넣고 소금기 있는 진흙으로 항아리 입구를 봉한 후, 하루 동안 달구었다 꺼내어 곱게 갈아서 쓴다. 《입문》⁶⁷

(분석) 담적이 대장(大腸)을 통하여 나온다(痰積從大腸而出)고 하였으니,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11) 『태산심법(胎産心法)』

태산1. 「卷之上・子煩并五心煩熱及煩躁口乾論・二陳湯」

(원문) 治痰績嘔惡⁶⁸.

(번역) 담이 쌓여 구역질하는 것을 치료한다⁶⁸.

(분석) 구토는 위장관내 나쁜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므로 여기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유관 증상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태산2. 卷之下・脇肋痛論

(원문) 産後脇痛, 乃敗血流入肝經, 其厥陰之脈, 循行脇肋, 故作痛. 此證有虛實. 宜分治之. (중략) 《醫通》云: 脇痛宜分左右. 蓋左屬血, 血藏於肝, 肝傷有死血故痛, 加減小柴胡湯. 右屬脾, 脾有痰績則痛, 加減補中益氣湯. 左右俱痛者, 屬虛, 補中益氣湯加桂, 下六味丸⁶⁸.

(번역) 산후의 옆구리 통증은 패혈(敗血)이 간경(肝經)으로 유입된 것이다. 궤음(厥陰)의 맥은 협늑부를 순행하므로 이 부위가 아픈 것이다. 이 병증에는 허에 속하는 것과 실에 속하는 것이 있다. (중략) 《장씨의통(張氏醫通)》에서는 "협통은 좌우로 구분하도록 한다. 대체로 좌는 혈에 속하고, 혈은 간에 저장되며, 간이 사혈(死血)에 의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아프게 된다. 가감소시호탕(加減小柴胡湯)을 쓴다. 오른쪽은 비(脾)에 속하며, 비에 담이 쌓이면 아프게 된다. 가감보중익기탕(加減補中益氣湯)을 쓴다. 좌우가 모두 아픈 것은 허에 속한다. 보중익기탕에 육계를 가미한 것으로 육미환을 복용한다."라고 하였다⁶⁸.

(분석) 비(脾)에 담이 쌓인다(脾有痰績)고 하였는데 비는 운화를 담당하므로 운화가 되지 못한 광의의 담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 협늑통(脇肋痛)은 근골격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12) 『의취(宜彙)』

의취1. 「卷之一 · 痰飲 · 積痰」

(원문) 一切食積痰, 百般怪症, 能利痰積從大便而出, 青礞石同焰硝火煨, 極細末, 每二錢, 調木瓜湯下. 或木瓜煎汁, 作丸, 每三四十丸, 空心干湯吞下⁶⁹.

(번역) 온갖 담적(痰積)으로 여러 가지 괴증이 되었을 때는 담적을 통리시켜 대변으로 빠져 나오게 할 수 있다. 청몽석을 염초와 함께 불에 달구어 아주 곱게 가루낸 다음 2돈씩 모과탕으로 복용한다. 혹은 모과 달인 즙으로 환을 만들어 30-40환씩 빈속에 생강탕으로 복용한다⁶⁹.

(분석) 담적을 통리시켜 대변으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여기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여러 가지 괴증에 관한 내용이므로 백병으로 분류하였다.

의취2. 「卷之一 · 嘈雜 · 嘈雜」

(원문) 治一切痰積 · 食積 · 酒積 · 茶積 · 肉積, 在胃脘, 當心而痛, 痞滿惡心, 嘈雜噫氣, 吞酸嘔吐, 脾疼等症脾疼, 卽背痛也只實五錢, 白朮二錢, 猪苓 神曲 各一錢五分, 東壁土導清, 水煎, 服連用十貼. ○二陳湯方見, 加黃連 梔子⁶⁹.

(번역) 여러 가지 담적(痰積) · 식적(食積) · 주적(酒積) · 다적(茶積) · 육적(肉積)이 위완에 있어 가슴이 아프거나, 속이 그득하고 메스껍거나, 조잡과 트림이 나거나, 탄산으로 토하거나, 비가 아픈(脾疼) 등의 증상, 비가 아픈 증상은 즉 등이 아픈 증상이다. 증상을 치료할 때는 지실 5돈, 백출 2돈, 저령 신국 각 1돈 5푼, 동쪽 벽의 흙(물에 맑힌다)을 물에 달여 연달아 10첩을 쓴다. ○이진탕(二陳湯) 처방에 황련 치자를 더하여 쓴다⁶⁹.

(분석) 담적이 위완 부위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여기의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조잡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의취3. 「卷之一 · 積聚 · 積聚」

(원문) 凡積聚在左曰, 血積. 在右曰, 食積. 在中曰, 痰積. 又曰, 積者, 五臟所生, 始發有常處, 其痛不離其部. 聚者, 六府所成, 其始發無根, 其痛無常處. 積者陰也, 聚者陽也. 又曰, 婦人有塊者, 多屬死血. 積者, 有常所有形之血, 聚者, 無定位無形之氣. 積塊, 痰與食積 · 死血也⁶⁹.

(번역) 대체로 적취가 왼쪽에 있는 것을 혈적(血積)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식적(食積)이라 하고, 가운데에 있는 것을 담적(痰積)이라 한다. 또한 적(積)은 오장(五臟)에서 생기는데, 처음에는 일정한 곳에서 발생하고, 통증이 그 부위를 떠나지 않는다. 취(聚)는 육부(六腑)에서 생겨나고, 처음 생겨날 때 근원이 없으며, 통증은 일정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 적은 음이고 취는 양이다. 또한 여성에게 덩어리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사혈(死血)에 속한다. 적은 일정하고 형태가 있는 혈이고, 취는 일정한 위치나 형태가 없는 기이다. 적괴(積塊)는 담음(痰飲)·식적·어혈로 생긴다⁶⁹.

(분석) 적취의 한 종류로 가운데 있는 것을 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의 담적은 적취로 해석된다.

의취4. 「卷之一・積聚・食積痰積腹痛」

(원문) 食積痰積, 영경게불희작末, 調水或調酒, 多服. ○食積腹痛, 白朮東壁土炒二錢五分, 麥芽 砂仁 山查肉 各一錢, 橘仁 香附米 神曲 青皮 各七分, 甘草五分, 爲末, 每一錢, 干茶調服. ○或生干三片, 水煎服. ○蟲積及腫, 用酒下⁶⁹.

(번역) ○식적이나 담적에는 영경귀 뿌리를 가루 내어 물이나 술에 타서 많이 복용한다. ○식적으로 배가 아플 때는 백출(동벽토를 넣고 볶는다) 2돈 5푼, 맥아 사인 산사육 각 1돈, 굴인 향부미 신국 청피 각 7푼, 감초 5푼을 가루내고 1돈씩 생강차에 타서 복용한다. ○혹은 생강 3쪽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충적(蟲積) 및 부종에는 술로 복용한다⁶⁹.

(분석) 적취문(積聚門)에 기록되어 식적, 담적, 충적 등 적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여기의 담적은 적취로 해석된다.

의취5. 卷之一・積聚・痰積積聚

(원문) 痰積, 鵠烹食三首, 神效. 一方云, 鵠羽烹, 食肉飲水⁶⁹.

(번역) 담적(痰積)에 능에[鵠]를 3마리 삶아 먹으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⁶⁹.

(분석) 적취문(積聚門)에 기록된 담적은 적취로 해석하였다.

의취6. 「卷之二・腰痛・老人腎虛勞傷」

(원문) 遠效散, 食積腰痛及痰積瘀血, 大便艱澁等症, 尤妙⁶⁹.

(번역) 원효산(遠效散)은 식적(食積)으로 인한 요통 및 담적(痰積)과 어혈로 대변을 보기 어려운 증상 등에 쓰면 매우 신묘한 효과가 있다⁶⁹.

(분석) 『의취(宜彙)』《卷之二 腰痛 醉飽入房, 因熱虛入腎》에 의하면 “원효산(遠效散)은 천련육 1냥(파두육 5개와 함께 볶은 다음 파두는 버린다), 회향(소금물에 축여 볶는다) 파고지(볶는다) 각 1냥.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고 1돈씩 빈속에 뜨거운 술에 타서 복용한다.”고 하였다. 강한 사하제인 파두와 함께 볶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담적과 어혈로 대변을 보기 어려운 증상에 쓴다는 표현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을 몰아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관 증상인 대변난삽(大便艱澁)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2. 기존 논문에 인용된 담적의 의미 분석

1) 중의학의 가증(瘕症) 진료에 대한 이해(对中医診治瘕瘕的体会)⁴

(원문) 症瘕 病因

③痰积: 飲食不节, 脾胃虚弱, 痰飲阻碍, 气机不轉, 致使气血运行不暢与停痰伏飲相搏結成症瘕

(번역) 가증(瘕症)의 병인

③담적: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비위가 허약하여 담음이 막히거나, 기기(氣機)가 전화(轉化)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혈운행의 불창(不暢)과 정체된 담, 머물러 있는 음이 서로 결합하여 가증이 된다.

(분석) 담적을 적취의 일종인 징가가 되는 병인으로 보고 있다. 담음이 막힌 것(痰飲阻碍), 정체된 담과 머물러 있는 음이 서로 결합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여기의 담적은 광의의 담음이 쌓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발되는 증상은 적취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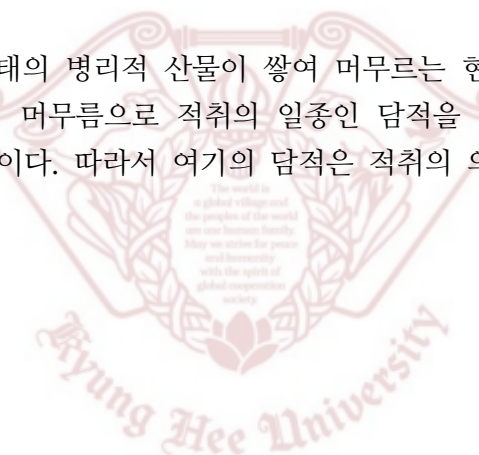


2) 소법(消法)⁷

(원문) 消法, 就是用具有消散或消削作用的药物和方剂, 或其他物理上的处理以消散积聚的一种治疗方法。(중략) 消法的适应证大致有下列几种。(중략) (4)痰积: 痰积即指人体在病因作用下产生的某些液态病理产物储留现象, 例如: 水饮、顽痰、浓汁或其它炎性渗出物停积… … 等等, 都属于痰积的范围。

(번역) 소법은 소산(消散) 또는 소삭(消削) 작용을 하는 약물과 처방을 사용하거나 혹은 기타 물리적인 처리를 통해 적취를 없애는 치료법이다. (중략) 소법의 적응증은 대략 다음 몇 가지이다. (중략) (4)담적: 담적은 인체 내에서 병인 작용으로 생기는 어떤 액체 상태의 병리적 산물이 쌓여 머무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수음(水飮), 완담(頑痰), 농즙 혹은 기타 염증성 삼출물의 축적… … 등등 모두 담적의 범위에 속한다.

(분석) 담적은 액체 상태의 병리적 산물이 쌓여 머무르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광의의 담음이 쌓여 머무름으로 적취의 일종인 담적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소법의 적응증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담적은 적취의 의미로 해석된다.



3) 기능성소화불량 변증시치의 이해(消化功能障碍证治体会)²⁰

(원문) 痰积型: 脘腹疼痛, 时作时止, 恶心头眩, 或呕而肠鸣, 漉漉有声, 饮食不能消化。治宜宣泄痰邪。常用方如温胆汤或枳术二陈汤。偏于湿者可用平胃散, 偏于热者用济生瓜蒌丸加減。

(번역) 담적형: 완복(脘腹) 동통이 때때로 있다가 때때로 그치고, 메스꺼움, 현기증, 구토하거나 장명으로 꾸룩꾸룩 소리나며,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치료는 마땅히 담사(痰邪)를 빼는 것으로 한다. 온담탕이나 지출이진탕 같은 처방을 상용한다. 습에 치우치면 평위산으로, 열에 치우친 것은 제생과루환가감을 쓴다.

(분석) 오심, 장명, 녹녹유성(漉漉有声), 구토 등을 근거로 여기의 담적은 위장관 내부의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액상 물질인 음(飲)의 성질이 두드러진다. 유발 증상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4) 지방간 진료 연구(脂肪肝诊治研析)²⁸

(원문) “气、湿、痰、瘀”常相互转化与兼夹。如气滞日久，脾失健运，饮食不化为精微反为湿，可致水湿内停；脾虚湿阻，也可导致水液代谢障碍，痰浊内停，形成痰积。痰瘀交阻，积于肝内，往往是中晚期脂肪肝的主要表现。

(번역) '기, 습, 담, 어혈' 은 항상 서로 전화(轉化)하며 겸하여 온다. 기체가 오래 지속되면 비가 건전하지 못하여 음식이 정미롭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습이 되어, 수습이 안에 정체하게 된다. 비허하면 습이 막혀서 수액 대사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탁한 담이 안에서 정체되어 담적을 형성한다. 담과 어혈이 서로 맺혀 간에 쌓이게 되면 이것이 흔히 중, 말기 지방간의 주요 표현이다.

(분석) 수액 대사 장애로 인해 탁담이 내정(內停)하여 형성된 것이 담적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의 담적은 수액 대사의 병리적 산물인 광의의 담음이 쌓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발된 증상은 지방간으로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5) 반지민 교수의 적증치료 학술경험(潘智敏教授治疗积证的学术经验)⁴⁰

(원문) 提出新五积说

《内经》及《难经》奠定了积证学说的理论基础。如《灵枢·百病始生第六十六》首次提出积证之名：“留而不去，传舍于肠胃之外，募原之间，留著于脉，稽留而不去，息而成积”...《难经》提出传统的五积理论，《难经·五十六难》曰：肝之积名曰肥气，心之积名曰伏梁，脾之积名曰痞气，肺之积名曰息贲，肾之积名曰贲豚。

潘智敏教授认为现代之积证多由气积、血积、痰积、食积、脂积五积，着而不去，留结为积。这是潘智敏教授根据长期临床实践总结的新五积说。潘智敏教授认为现代之人，生活节奏加快，心情焦虑压郁，导致肝气郁积，不得疏达，久之形成气积；脾主运化，运化水湿，输布水谷精微。现代之人，进食膏粱厚味，损伤脾胃，导致运化失常，饮食不化，则产生食积；或脾胃不能运化湿水，聚为痰湿，形成痰(湿)积；

(번역) 새로운 오적(五積)설을 제기하다

『내경』과 『난경』은 적증(積症) 학설의 이론적 기초를 다졌다. 예를 들어 「영추·백병시생 제육십육」은 적증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기하여 "머물러 움직이지 않으며 장위(腸胃)의 밖 모원(募原) 사이에 있고, 맥에 남아 머물다가 제거되지 않고 계속되어 적을 이룬다."라고 하였다....『난경』은 전통적인 오적 이론을 제시하는데, 「난경·오십육난」은 간의 적은 비기(肥氣), 심의 적은 복량(伏梁), 비의 적은 비기(痞氣), 폐의 적은 식분(息贲), 신의 적은 분돈(贲豚)이라고 하였다.

반지민 교수는 현대의 적증은 기적(氣積), 혈적(血積), 담적(痰積), 식적(食積), 지적(脂積)의 오적에서 비롯되며 부착되어 제거되지 않고 남아서 적이 된다고 여긴다. 이것이 반지민 교수가 장기적인 임상실천에 근거해 총괄한 새로운 오적설이다. 반지민 교수는 현대인은 생활 리듬이 빨라지고 마음이 초조하고 억울해지면서 간기가 울결되어 소통되지 못하고 오래되면 기적(氣積)을 형성하게 된다고 여긴다. 비는 운화를 주관하고, 수곡정미를 운반한다. 현대 사람들은 고량후미를 먹고 비위를 손상되면 운화가 실조되면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여 식적이 생긴다. 혹은 비위가 수습을 운화하지 못하면 담습이 모이게 되어 담(습)적을 형성하게 된다.

(분석) 적증(積症)의 하나로 담적을 제시하고 있다. 적증의 이론적 기초로 예를 들은 비기(肥氣), 복량(伏梁), 비기(痞氣), 식분(息贲), 분돈(贲豚)의 오장적(五臟積)은 적취에 해당되며 부착되어 제거되지 않고 남아서 적(積)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점은 토나 설사로 제거되는 위장관내 병리적 산물과는 다른 점이라고 여겨지며, 여기의 담적은 적취로 해석된다.

6) 소아는 “적(積)이 항상 있다” 상태를 시험적으로 논하다(试论小儿“积常有”状态⁴¹

(원문) 痰积

肺主通调水道，脾主运化水湿，肾为水脏，肺脾肾三脏与人体水液的正常代谢密切相关。小儿肺、脾、肾三脏不足，或为外邪感触，或为饮食所伤，或因先天肾阳不足、蒸化无权，水液运化失度，酿湿生痰。“脾为生痰之所，肺为贮痰之器”，在小儿痰浊即生，多蕴藏于肺脏，表现为肺为痰阻的症状，如面色少华，喉中痰鸣且睡时尤著，咳有痰声；亦有痰聚于胃肠者，表现为纳差、腹胀、便溏。

(번역) 담적

폐는 수도를 통조하고, 비는 수습을 운화하고, 신은 수장이 되니, 폐비신 삼장은 인체 수액의 정상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아 폐, 비, 신의 삼장이 부족하거나 혹은 외사에 감촉되거나, 음식에 상하거나 선천적으로 신양이 부족하고 증화(蒸化)되지 못하고 수액운화가 잘 되지 않아 습이 차고 담이 생긴다. "비는 담이 생기는 곳이고 폐는 담을 저장하는 그릇이다" 소아에서 담이 탁하면 곧 폐에 많이 간직되어 폐에 담이 막히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안색이 좋지 않고 목에서 가래가 올리는데 잘 때 더욱 두드러지며, 기침할 때 가래소리가 난다. 위장에도 역시 담이 모이는 것이 있으니 밥을 먹지 못하고, 복부팽만, 무른 변 등으로 나타난다.

(분석) 담적을 수액운화가 잘 되지 않아 발생한 담이 쌓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축적되는 곳이 폐일 때 호흡도 분비물인 가래로 나타나고 위장관일 때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의 담적은 일반적인 광의의 담이 쌓인 것으로 해석되며, 유관 증상은 백병으로 분류하였다.

7) 울론(鬱論)에 따른 위식도 역류질환 분석(从郁论治胃食管反流病探析)⁴³

(원문) 痰是水液代谢障碍所形成的较稠浊的病理产物。各种原因导致脾胃中焦气化功能失常，水津停滞可形成痰，所谓“脾为生痰之源。”反过来，痰滞留于肠胃，可影响脾胃的功能和气机的升降，产生痰积，如痰停于胃，胃失和降，可见恶心呕吐，胃脘痞满。脾胃受痰所侵，气机升降失调，痰气郁结为患，形成所谓的痰积为郁，即可产生呕吐痰涎，脘闷不舒，胸骨后不适等一系列胃食管反流病的临床表现。

(번역) 담은 수액 대사 장애로 인해 형성되는 비교적 조탁한 병리의 산물이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비위중초의 기화 기능이 상실되어 수액과 진액이 정체되면 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른바 “비장이 가래의 근원이다.” 반대로 담이 장위(腸胃)에 머물면 비위의 기능과 기기의 승강에 영향을 미쳐 담이 쌓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담이 위에 머물게 된다. 위가 화강(和降)기능을 잃으면 메스꺼움이 나고 구토가 일어나며 위완이 그득하고 답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비위가 담에 침범되어 기기승강(气机升降)이 실조하면 담기가 울결되어 질환이 되고 소위 담적이 울증이 되는 것을 형성하여 구토담연, 홍민불서(脘闷不舒), 흉골 후 불편 등 일련의 위식도역류병의 임상적 표현이 생길 수 있다.

(분석) 담이 장위에 머물게 된다는 것, 위가 화강(和降) 기능을 잃고 담적이 위에 정체된다는 것은 위장관 안에 병리적 물질이 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이 오심, 구토, 비만(痞满) 등의 소화기계 증상을 유발함을 설명하고 있다.

8) 요통 병증에 관한 고대 문헌 연구(腰痛病证古代文献研究)⁴⁶

(원문) 痰积腰痛 《丹溪心法 卷四腰痛》中记载：“腰痛主湿热、肾虚、瘀血、挫闪、有痰积。”在前人基础上，突出提出了瘀血、痰积等病理产物导致腰痛的病因。

(번역) 담적요통 「단계심법(丹溪心法) · 卷四腰痛」중에 기재되길 “요통은 주로 습열, 신허, 어혈, 좌섬, 담적이 있다.” 선인의 기초 위에 어혈, 담적 등 병리적 산물이 요통을 일으키는 병인이 된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제시했다.

(분석) 담적요통의 담적은 병리적 산물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의 담적은 대사작용의 병리적 산물인 광의의 담음이 쌓인 것으로 해석된다.



9) 울금천 교수의 치매 치료 경험(栗锦迁教授治疗痴呆经验)⁵⁴

(원문)栗老重视痰浊瘀血与痴呆的关系。栗老认为痴呆的发生与痰浊阻滞、上蒙清窍使神明不清、智力减退有关。明·张景岳认为“平素无痰而或以郁结或以不遂或以思虑或以疑惑或以惊恐而渐至痴呆”，情志郁结可以生痰，继而引发痴呆。陈士铎《辨证录》言：“痰积则神明不清”。《石室秘录》指出“痰气最盛，呆气最深”。痰浊在痴呆发病中占有重要作用。栗老还认为气滞血瘀、脑络不通、清窍失灵进而亦可以导致痴呆。清·王清任“脑为元神之府，灵机记性在脑不在心”，“气血凝滞脑气”，“凡有瘀血也，令人善忘”，瘀血阻滞也是令人神智衰退的重要原因。痰浊瘀血即是脏腑功能失调的病理产物，又是痴呆的致病因素。

(번역) 울선생은 담탁, 어혈과 치매의 관계를 중시한다. 울선생은 치매의 발생이 탁한 담이 조체되어 위로 맑은 구멍을 덮어 씌워 정신을 맑지 못하게 하고 지력을 감퇴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명·장경악은 "평소 담이 없거나 혹 울결하거나 혹 이르지 않거나 혹 사려, 또는 의심, 또는 슬픔, 두려움이 치매에 이르게 한다."며 감정이 지나치면 담이 생기고 이어 치매에 이르게 된다. 진세탁의 『변증록』에서 말하기를 "담이 쌓이면 정신이 맑지 않다"고 했다. 『석실비록』은 '담기(痰氣)가 가장 성하면, 치매기가 가장 심하다'고 했다. 담탁은 치매 발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울선생은 또한 기체, 혈어(血瘀)로 뇌락이 불통하여 머리가 맑지 않아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청나라 왕청임은 "뇌는 원신지부(元神之府)이며, 영성과 기억력은 뇌에 있지 심(心)에 있지 않다", "기혈이 뇌에 응체되어 있다", "무릇 어혈이 있으면 잘 잊게 한다"고 하였으니 어혈이 막힌 것이 바로 정신지력을 쇠퇴시키는 요인이다. 담탁, 어혈은 곧 장부기능실조의 병리적 산물이며 치매의 원인이다.

(분석) 담이 쌓이면 정신이 맑지 않다고 했는데, 담이 탁한 것은 장부기능실조의 병리적 산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의 담적은 대사의 병리적 산물로 해석된다. 치매는 신경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10) 중의학은 5가지 인체 “오물”을 단번에 제거하라고 가르친다(中医教你一键清除这5种人体“垃圾”)⁵⁵

(원문) 痰积——生大病

痰的成因较为复杂，外因多与感受湿邪有关，内因多与肺、脾、肾等功能失常有关。长期劳累、体虚、抵抗力弱的人更容易被痰积盯上。痰所引起的疾病临床表现多样，可停留在身体的不同部位，引发相应的症状。头晕目眩、恶心呕吐、心悸气短、中风甚至肿瘤等，都是因停于脏腑、经络的无形之痰引起的。

(번역) 담적으로 대병(大病)이 생긴다.

담의 원인은 더 복잡하며, 외부 원인은 대부분 습사(湿邪)에 감수(感受)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내부 원인은 대부분 폐, 비, 신 등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다. 장기적인 피로, 신체적 쇠약 및 약한 저항을 가진 사람들은 담적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담으로 인한 질병의 임상 증상은 다양하여 신체의 다른 부분에 머물러 해당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현기증, 메스꺼움 및 구토, 심계항진, 호흡곤란, 뇌졸중 및 심지어 종양 등은 모두 내부 장기와 경락에서 무형의 담으로 인해 발생한다.

(분석) 담의 다양한 증상이 내부 장기와 경락에서 무형의 담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담적은 체내 대사의 병리적 산물이 쌓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발질환은 백병으로 분류 하였다.

11) 주단계가 비(脾)를 근본으로 삼아 설사를 치료한 특색의 예(朱丹溪以脾为本论治泄泻特色举隅)⁵⁶

(원문) 痰积致泄，肺脾同治

肺与大肠相表里，痰积于肺，肺失肃降，大肠传化功能失常，亦可致泄。《丹溪治法心要》：“泄泻，有湿、火、气虚、痰积、食积。”丹溪认为痰积可致泄，关乎肺脾，因“脾为生痰之源，肺为贮痰之器”。痰积泄泻的临床表现，戴思恭简述为“或泻，时或不泻，或多或少，是痰也”，其后明代医家秦景明在《症因脉治》中详细辨析：“痰积泄之症：或泻或止，或多或少，或下白胶如蛋白，腹中漉漉有声，或如雷鸣，或两肋攻刺作痛，此痰积泄泻也。痰积泄之因：饮食过多，或食后即卧，或肥甘纵口，或临食粗咽，磨化渐难，遂成痰积，下滞大肠，则成泄泻之症矣。”

(번역) 담적으로 인한 설사는 폐비를 같이 치료한다.

폐와 대장은 서로 표리관계여서 가래가 폐에 쌓이면, 폐가 숙강하지 못하고 대장이 전화(傳化) 기능을 상실하여 설사가 날 수 있다. 「단계치법심요」: “설사는 습, 화, 기허, 담적, 식적이 있다.”고 말했다. 단계는 담이 쌓이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겼는데, 폐비(肺脾)와 관련이 있다. “비장은 담이 생기는 근원이고, 폐는 담을 저장하는 그릇이다”라고 하였다. 담적설사의 임상표현으로 대사공(戴思公)은 '혹은 설사 때때로 혹은 설사하지 않음, 혹 많거나 혹 적거나, 이것이 바로 담이다'라고 말했다. 후명대의 의학자 진경명이 『증인맥치(症因脉治)』에 자세히 분석하였다: "담적설사의 증상은 : 혹 설사하거나 혹 멈추거나 혹은 많거나 혹은 적고, 때로는 희고, 혹 달걀흰자처럼 흰 아교질을 설사하고, 혹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혹은 천둥소리가 나고, 혹 옆구리가 옥신옥신 쭈신다. 이것이 담적설사이다. 담적설사의 원인: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혹 식사 후 바로 눕거나, 혹 단 음식으로만 먹거나, 거친 음식을 삼키면 갈아서 소화되기 점점 어렵게 되니 마침내 담적을 이루게 되어 아래로 대장에 정체되니 이런즉 설사의 증상이 된다.

(분석) 담적설사는 먹은 음식이 소화되기 점점 어렵게 되어 담적을 이루고 이것이 대장에 정체되어 설사가 된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담적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 해석된다. 설사는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12) 그 외 논문 요약

표 3. 논문에 인용된 담적의 의미와 유발 증상

제목	담적 의미	유발 증상
农村常见急症中医简易疗法(续) ⁵	광의의 담	학질(감염성)
贺本绪老中医医案 ⁶	적취	적취
“百象汤”治疗小儿百日咳 ⁸	호흡도 분비물	백일해(호흡기계)
周小农诊治老年病经验拾萃 ⁹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소화기계
儿科医话两则 ¹⁰	광의의 담	감기이후 설사(감염성)
《金匱钩玄》治痰撮旨 ¹¹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소화기계
痰积砂淋1例治验 ¹²	광의의 담	결석(비뇨기계)
扶正化痰通淋法治疗泌尿系结石 ¹³	광의의 담	결석(비뇨기계)
皂莢在儿科的运用 ¹⁴	적취	적취
结胸 ¹⁵	광의의 담	결흉(순환기계)
痞积 ¹⁶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소화기계
痰积致癰亟当化痰 身痛不休可恃温运 ¹⁷	광의의 담	비뇨기계
桔络货紧价扬 ¹⁸	호흡도 분비물	호흡기계
自拟腰复散治疗急性腰扭伤204例 ¹⁹	광의의 담	근골격계
浅谈下法的运用 ²¹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소화기계
학질(瘧疾)의 증상과 기전에 대한 문헌 적 고찰 - 청대(清代)까지 중국 의서를 중심으로 ²²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소화기계
鹿地五虫汤治疗梨状肌综合征经验 ²³	광의의 담	근골격계
浅谈“善治脾者,能调五脏” ²⁴	광의의 담	소화기계
脂肪肝的病机及治疗研析 ²⁵	광의의 담	소화기계
痰病钩玄——对3部中医权威辞书有关 “痰”词条的研究 ²⁶	광의의 담	백병
中西医结合治疗儿童哮喘急性发作疗效 观察 ²⁷	호흡도 분비물	호흡기계
二陈汤治验举隅 ²⁹	광의의 담	근골격계
温下法临证举隅 ³⁰	호흡도 분비물	호흡기계
肝纤维化证治六法 ³¹	적취	적취

표 3. 논문에 인용된 담적의 의미와 유발 증상(계속)

제목	담적 의미	유발 증상
礞石滚痰丸服法浅探 ³²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백병
中西医结合治疗声带小结69例 ³³	광의의 담	호흡기계
辨“性”吃菜可治病 ³⁴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소화기계
对“腹痛宜和”的认识 ³⁵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소화기계
浅谈腰痛的辨证论治 ³⁶	광의의 담	근골격계
泄泻的古今诊疗概况 ³⁷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소화기계
马玉琛教授风湿性间质性肺病痰毒并治研究 ³⁸	광의의 담	호흡기계
李学耕小儿哮喘治验 ³⁹	호흡도 분비물	호흡기계
金元四大家论泄泻特色浅探 ⁴²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소화기계
明代名医李梴论治癥积病症的学术思想研究 ⁴⁴	적취	적취
浅谈朱丹溪论泄泻 ⁴⁵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소화기계
《名医类案》与《续名医类案》泄泻案的用药、组方及证治特点研究 ⁴⁷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소화기계
谈谈《褚氏遗书》的中医生理病理观 ⁴⁸	광의의 담	백병
《黄帝内经》养生三原则 ⁴⁹	적취	적취
潘智敏“五积理论”治疗代谢综合征经验 ⁵⁰	적취	적취
“积常有”理论对小儿哮喘治疗的指导作用 ⁵¹	광의의 담	호흡기계
识别真假瓜蒌子 ⁵²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소화기계
老年人肺部真菌感染的护理 ⁵³	호흡도 분비물	호흡기계

3. 담적의 의미 분석 결과

담적이 인용된 고전 한의서 80개의 조문과 현대 논문 53개, 총 133개의 문헌을 조사하여 담적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첫째,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이다. 위장관은 구강에서 시작하여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연속되는 관상 구조로 이루어진 기관으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한다. 위장관은 전반적으로 점막, 점막하층, 근육,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에 동정맥과 림프, 신경이 분포한다⁷⁰. 위장관 안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소화가 진행 중인 미즙상태의 음식물, 점액과 위액, 장액 등의 소화액, 소화효소, 세균을 포함한 미생물, 소화 중에 발생한 가스, 분변(糞便),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분변매복(糞便埋伏 fecal impaction) 등이 있다. 이러한 위장관 내용물이 병리적으로 작용하여 여러 증상을 일으키게 된 물질 또는 그러한 병리적 상태를 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 호흡도(呼吸道) 분비물이 쌓인 것이다. 호흡도에서 배출되는 일종의 점조(粘稠)하고 오탁(汚濁)한 분비물을 협의(狹義)의 담이라고 하는데⁷¹ 협의의 담이 취합되어 쌓인 것을 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셋째, 수액대사 또는 영양대사의 병리적 산물이 뭉쳐진 것이다. 이는 광의(廣義)의 담음이 쌓인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담음이란 체내의 과다한 수분이 일부분에 정체하여 생성된 일체의 교액성 수독(水毒)으로서 일종의 비생리적인 분비물을 의미한다⁷². 광의의 담음은 협의의 담음 외에 체내에 유체된 수습(水濕)으로 말미암아 응취되어진 수액(痰液), 수사(水邪) 및 무형의 담음 병증이 이에 속한다⁷¹.

넷째, 적취(積聚)이다. 적취는 일명 징가(癥瘕)라고도 하며 복부내의 적괴(積塊)를 가리킨다. 적취는 간종양이나 간비종대처럼 위장관 외부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관 안에 있는 병리적 물질과는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사된 문헌에서 징가, 혈괴, 적취문에서 인용된 담적은 적취로 분류하였다(표4).

표 4. 분석 대상 문헌에서 인용된 담적의 의미 결과

문헌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	호흡도 분비물	광의의 담음	적취	합계
태평성혜방	1				1
의학강목	14	2	7	5	28
세의득효방	1	1			2
향약집성방	1	1			2
본초강목	3	3		2	8
신간의가필용	2				2
여과경륜	3				3
경약전서	6		2		8
침구경험방				1	1
동의보감	11	1	2	3	17
태산심법	1		1		2
의휘	3			3	6
논문	16	6	23	8	53
합계	62	14	35	22	133
비율(%)	46.6	10.5	26.3	16.6	100

담적이 인용된 조문과 논문에서 담적으로 인한 증상을 현대의학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담적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는 한편, 해당 증상을 치료하는데 있어 병인을 담적으로 접근하는 한의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설사, 복통, 구역, 기열(氣噎), 토혈, 조잡(嘈雜), 애기(噎氣) 등의 증상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총 40례, 전체의 30.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콧물, 코막힘, 기침, 천식, 노채(勞瘵) 등의 호흡기 증상과 학질, 풍열 등의 감염성 질환은 호흡기계 및 감염성으로 분류하였다. 총 27례, 전체의 20.3%로 소화기계 증상 다음으로 많았다.

간질(癇), 소아경풍(小兒驚風), 어지럼증, 위증(痿症), 불면, 치매 등은 신경계 증상으로 분류하였고 7례, 5.3%이다. 불임, 대하, 산퇴(疝瘻) 등은 비뇨생식계 증상으로 분류하였고 11례 8.3%였다. 결흉은 순환기계 증상으로 분류하였고 1례가 있었다.

요통, 협늑통 같은 근골격계 증상도 담적이 연관된 것으로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총 9례 6.8%이다. 담음 또는 담이 쌓여 발생하는 여러 질병에 관한 치법을 논하고 있는 조문은 백병으로 분류하여 총 14례였고, 적취는 총 23례, 17.3%였다. 그 외 석옹(石癰) 1례는 피부질환으로 분류하였다(표5).



표 5. 담적으로 인한 증상 분류 결과

문헌	소 화 기 계	호 흡 기 계 및 감 염 성	신 경 계	비 뇨 생 식 계	순 환 기 계	근 골 격 계	적 취	피 부	백 병	합 계
태평성혜방	1									1
의학강목	5	6	5	3		2	5	1	1	28
세의득효방	1	1								2
향약집성방		2								2
본초강목	1	4		1			2			8
신간의가필용		1	1							2
여과경륜	1			2						3
경약전서	4	1				1			2	8
침구경험방							1			1
동의보감	6	1		2			3		5	17
태산심법	1					1				2
의취	2						3		1	6
논문	18	11	1	3	1	5	9		5	53
합계	40	27	7	11	1	9	23	1	14	133
비율(%)	30.1	20.3	5.3	8.3	0.8	6.8	17.3	0.8	10.5	100

IV. 고찰

1. ‘적취(積聚)의 일종’으로서 담적

담적은 기존의 담음, 식적, 어혈 등의 용어만큼 흔하게 사용되었던 용어는 아니지만, 분명 한의학 문헌에 존재하고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최근에 새로 창작된 것이 아니다. 담적의 적(積)은 가장 오래된 의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에 처음 등장하는데 적(積), 적취(積聚), 적기(積氣)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적(積)과 취(聚)의 개념이 내경(內經) 이전에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³. 담적은 일반적으로 적취의 한 종류로 분류되었고, 특히 복부 가운데 담이 모여 뭉친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痰積者, 痰結於中而成)³.

적취는 일명 징가(癥瘕)라고도 하며, 복부내의 적괴(積塊)를 가리킨다. 적은 만지면 형체가 있고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며 통증이 일정한 곳에 있으며, 취는 만지면 형체가 없고 모였다 흩어졌다 하여 일정하지 않으며 통증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복통, 복창(腹脹) 등을 수반한다. 적취의 주요 임상 표현을 근거로 살펴보면 서양의학의 간비종대, 복강내 종양, 장기능 문란, 불완전성 장폐색, 증식성 장결핵 및 내장하수 등의 질환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³.

역대의서의 적취문(積聚門)에 등장하는 담적을 살펴보면, 『유문사친(儒門事親)』은 「卷三·五積六聚治同鬱斷二十二」에서 임상 증상을 기준으로 9가지 적(식적, 주적, 기적, 연적(涎積), 담적, 벽적(癖積), 수적(水積), 혈적, 육적)을 소개하였는데 여기에 담적이 포함된다. 『엄씨제생방(嚴氏濟生方)』에서는 적을 7가지 병증(기적, 육적, 주적, 다적(茶積), 식적, 담적, 혈적)으로 나누었는데 담적이 포함되어 있다⁷⁴.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에서는 『의학강목』에서 징가(癥瘕), 담괴(積塊)를 근거로, 『본초강목』에서 혈괴(血塊)를 근거로, 『동의보감』에서는 적취문에 인용된 것을 근거로 담적의 의미를 적취라고 해석하였다.

담적의 의미 중 적취와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로서의 의미를 비교해보면, 병소의 위치 면에서 위장내 병리적 물질은 위장관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적취는 위장관내뿐만 아니라 강목19번 조문의 경우처럼 복부의 피부안, 막의 바깥에 있는 것을(塊在皮裏膜外) 포함하여 복부 전반에 이르기 때문에 적취의 병소가 더 광범위하다. 간비종대, 간종양, 자궁암 등 복부의 덩어리로 촉진되지만 위장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적취에만 해당된다.

치법에 있어서도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은 토법, 하법으로 직접적으로 위장관내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지만, 적취는 강목19번 조문에 ‘적병(積病)은 설사약을 쓰는 것이 불가한데, 진기를 손상하고 병 역시 물러나지 않는다. 당연히 소적하는 약을 써야하

며, 융화하고 열어주면 저절로 소멸한다.’고 밝혔듯이 간접적으로 소모시키는 소법(消法)과 보법(補法)을 위주로 한다. 방(方)⁷은 “소법은 소산(消散) 또는 소삭(消削) 작용을 하는 약물과 처방을 사용하거나 혹은 기타 물리적인 처리를 통해 적취를 없애는 치료법”이라고 하여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담음(痰飲)이 쌓인 것’으로서 담적

담음은 인체 내의 비정상적인 수액의 병리적인 상태를 말하며 한의학에서는 고전에 서부터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담음에 대한 병증을 설명해왔다. 일반적으로 담음은 체내의 과량의 수액이 체내의 일부분에 정취하여 발생하는 병증으로 일종의 비생리적인 분비물을 의미한다⁷⁵. 원래 『내경(內經)』에는 담(痰)이란 글자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적음(積飲), 수음(水飲), 또는 음(飲)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한대(漢代) 장중경의 『상한론』에도 수기(水氣) 또는 한음(寒飲) 등으로 표시되고 있고 ‘담(痰)’ 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금궤요략』에는 현음(懸飲), 일음(溢飲), 지음(支飲)과 함께 담음을 사음(四飲)에 귀속시켜 논하고 있어 현존 문헌상 담자(痰字)의 효시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후로 담과 음을 혼용해 오다가 송대(宋代) 양사영(楊士瀛)의 『인제직지방(仁齋直指方)』에서 “담은 포락(包絡)에 잠복하고 기를 따라 올라 폐에 머물면서 기침할 때 동하는 것(客肺壅嗽而發動者)이라 하고, 음은 위부(胃府)에서 생겨나서 구역질하고 토하는 것(爲嘔爲吐者)”이라 하여 처음으로 담과 음을 구분하여 논하였다. 이후 장경악(張景岳)은 “담은 오장이 상하고 기혈순환이 불조(不調)하여 진혈(津血)이 패하여 된 것으로 탁하고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전신 조직 장기에 안 가는 곳이 없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음은 오로지 장위(腸胃)의 손상으로 섭취한 수음이 정체되어 구토청수, 흥복팽만, 녹녹유성(漉漉有聲)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⁷⁶. 담의 개념이 호흡도 분비물을 지칭하였던 것에서 신체 대사에서 발생하는 병리적 산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담적이 인용된 고전과 현대 문헌의 분석 결과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46.6%)과 호흡도 분비물(10.5%), 광의의 담음(26.3%)으로 해석됨이 총 83.4%에 이르렀는데 이는 담적 용어가 실제로 담 또는 담음이 쌓인 것의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증상에 있어서도 몸의 각 부위를 돌아다니는 담음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화기계, 호흡기계, 신경계, 순환기계, 비뇨생식계, 근골격계, 피부 등 다양한 증상에서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식적(食積)과 담적

식적은 과식이나 편식 등의 부적절한 식습관 또는 비위의 허약한 상태로 인해 수곡이 소화되지 않거나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여 있는 병리적 상태이다⁷⁷. 식후에 발생하는 복부비민(腹部痞悶), 복통, 식후불화(食後不化)를 특징적으로 하며⁷⁸, 이외에도 애기(噎氣), 토사(吐瀉), 두통, 권태, 부종, 관절통, 기구맥긴성(氣口脈緊盛), 설태후니(舌苔厚膩)등의 증상도 동반된다⁷⁹.

담적을 인용한 조문을 살펴보면, 강목7에서는 식적과 담적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고, 강목10에서는 담적창(痰積脹)에서 아위환이 소아 식적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강목19에서는 담적의 덩어리를 치료함에 식적도 능히 소모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강목26에서는 ‘胃有食積’을 설명하면서 담적을 없애는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신간1의 ‘瀉腸胃痰積, 及小兒食積痰’ 문구와 신간2의 ‘食積成痰’, 동의7의 ‘治食積痰’은 식적이 담을 형성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동의3의 ‘위기(胃氣)가 담적에 의지해 양분을 받는다(大凡病久淹延, 卒不死者, 多因食積, 痰飲所致. 何以然者, 盖胃氣亦賴痰積所養, 飲食雖少, 胃氣卒不便虛故也)’는 문구는 담적의 형성에 있어 식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문헌에 근거하여 식적과 담적을 비교해보면, 식적은 그 기원이 섭취한 수곡만 해당되지만 담적은 섭취한 수곡뿐만 아니라 위장관 안에서 발생하는 병리적 물질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식적도 전신증상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담음의 전신각처를 돌아다니며 발병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담음이 쌓인 의미로서 담적이 식적보다는 전신증상을 발현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 심하비경(心下痞硬)과 담적, 그리고 위장 외벽의 굳어짐

기능성소화불량이나 과민성장증후군 같은 소화기질환 환자들을 복진했을 때, 복부에 딱딱한 경결이 잡히거나 덩어리처럼 촉진되는 것을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심하 부위가 막혀서 답답하고 단단한 상태를 심하비경(心下痞硬)이라 하고, 하복부에 단단한 저항물이 촉진되고 팽만감이 있는 상태를 소복경만(小腹硬滿)이라고 한다³.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적도 적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복부에서 심하비경을 유발하는 덩어리를 담적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최의 저서¹에 의하면 “습관적으로 급하게 먹고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위장관 내에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미즙과 같은 음식 노폐물이 항상 남게 되는데 이러한 노폐물이 저류하면서 많은 독소(毒素)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러한 독소가 위와 장 점막을 손상시키면서 점막세포 사이로 독소가 투과되기 시작한다. 위장의 점막층 아래로 이러한 독소가 침투하여 근육층, 신경계, 혈관계, 림프계에 유해물질이 쌓이면서 위장 점막 외벽조직이 딱딱하게 붓고 굳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굳어진 위장 외벽 조직을 담적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장 외벽(위장의 점막층을 제외한 점막하층과 근육층, 장막층까지를 뜻함)이 굳은 것이 담적이라는 최의 주장은 이번 연구의 문헌조사상으로 배치되는 면이 있다. 본 연구의 담적이 인용된 문헌에서 위나, 대장이 굳어진다(硬化)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목3의 ‘痰積者下之’, 강목7의 ‘食積·痰積, 如脈有力者宜下之’. 강목11의 ‘與桃仁承氣一日三貼, 下之, 皆是血塊痰積’, 본초5의 ‘吐法去痰積之義’, 동의7의 ‘能利痰積, 從大便而出’, 동의8의 ‘胃中痰積, 流下滲入膀胱, 出於大小腸’, 동의17의 ‘痰積, 從大腸而出’ 등을 보면 담적을 토법이나 하법으로 위장관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치료했으며, 담적이 대장으로 빠져나온다는 문구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강목17에서는 담적을 ‘惡物’, ‘腹中糟粕’, ‘腸腹之糞’으로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의 주장대로 위장 외벽이 굳어진 상태를 담적이라고 규정 한다면 토, 하의 치법으로 담적이 위장관 밖으로 배출된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최¹에 의하면 “원주 의공학연구소가 개발한 위 외벽 굳기를 체크하는 기계를 적용해 본 후 단단한 부분이 위장 외벽 조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담적을 주제로 한 정식 학술 논문은 이⁸⁰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담적(痰積) 진단 시스템의 설계와 응답특성” 1례가 있다. 이 논문에서 “담적은 복부 중앙에 생기는 적취(積聚)의 형태로 여러 원인이 있으나 음식물의 소화 장애로 생기는 병리적 산물이다.”라고 담적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담적을 적취의 일종으로 보는 일반적인 시각에 부합한다. 또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복부 경결의 경화도를 정량화, 객관화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정상 부위보다 경결 부위에서 단단한 매질이 존재하여 반사 신호가 크게 나타난 것을 보고하였지만 이 단단한 매질이 복벽 근육층인지, 복막 주름인 대망(大網)인

지, 위장 외벽인지, 혈관 조직인지, 위장관내 분변이나 아직 소화되지 못한 단단한 상태의 음식물인지 그 정체에 대해 밝힌 것은 아니므로 이 연구는 위장 외벽이 굳어진 것이 담적이라는 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굳음의 정도는 경도(硬度: Hardness)로 표시하는데 물체에 압력을 가했을 때 변형에 대한 저항력의 크기로서 규정한다⁸¹. 즉 같은 압력에 대해 변형이 적을수록 단단한 것이다. 압력을 가했을 때 변형되는 깊이를 측정하는 경도계(Durometer)를 이용하여 피부 경도를 측정한 몇 차례의 연구가 있는데⁸² 위장 외벽의 경우는 개복을 해야 하므로 직접적으로 위장 외벽의 경도를 측정하는 것은 적용이 어렵다. 간(肝)의 경우는 피브로스캔(Fibroscan[®])을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경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실제 임상에서 응용되고 있다. 피브로스캔(Fibroscan[®])은 간내 탄력파동의 속도를 측정하여 간의 경화도를 평가하는 장비이다. 진동자와 초음파 변환기로 이루어진 탐촉자를 환자의 늑간에 수직으로 위치시킨 후 버튼을 누르면, 진동으로 유발된 탄력파동이 조직으로 전달되고 초음파 변환기가 포착하여 탄력파동의 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조직이 딱딱할수록 전파되는 속도가 빠른 것을 이용해 간실질의 경화도를 측정한다. 하지만 비만인 경우 (BMI 28.0 kg/m² 이상)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하며, 복수가 있거나 늑간 공간이 좁은 경우는 측정이 불가능하다^{83,84}. 간의 경화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위장벽의 경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심하비경과 위장 외벽의 굳어짐에 관한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점이 있는데 담적의 의미 해석에 있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한의학 용어의 특성상 의미가 포괄적이고 중첩되며 현대 해부생리학적으로 어느 부위의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문헌 선정에 있어 한의학 고전을 전수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담적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의학 고전과 논문에서 담적이 인용된 부분을 분석하여 담적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밝혔고, 담적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한의학에서 중요한 병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식적과 담적을 비교하여 개념을 구별하였고, 담적을 위장 외벽의 굳어짐으로 이해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근거가 충분치 않음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V. 결론

1. 담적이 인용된 고전 한의서의 80개 조문과 논문 53개 문헌에서 담적의 의미를 해석한 결과 위장관내 병리적 물질이 62례로 가장 많았고 광의의 담음이 35례, 적취가 22례, 호흡도 분비물이 14례였다.
2. 담적이 연관된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구역, 조잡(嘈雜), 애기(噯氣)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총 40례, 전체의 30.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코막힘, 콧물, 기침, 천식 등의 호흡기계 및 학질, 풍열 등의 감염성 증상은 총 27례, 전체의 20.3%로 소화기계 다음으로 많았다. 간질, 경풍, 구안와사, 치매 등 신경계 증상은 7례, 5.3%이고, 불임, 대하, 산증(疝症)등 비뇨생식계 증상은 11례, 8.3%였다. 그 외, 근골격계, 피부 등 다양한 증상이 담적과 연관되어 인용되었다.
3. 담적은 적취의 일종으로 복부 내에 경결된 덩어리로 축진되는 것의 성격을 갖으면서, 취산불정(聚散不定)하여 전신의 각처를 돌아다니며 발병하는 담음의 성격도 있기에 신체 각 부분에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식적은 그 기원이 섭취한 수곡만 해당하지만 담적은 섭취한 수곡뿐만 아니라 위장관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병리적 물질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소화기질환 환자들을 복진했을 때, 심하비경이나 소복경만으로 축진되는 덩어리를 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이것이 위장 외벽이 굳은 것이라는 설은 한의학 고전 및 기존 논문 문헌상 배치되는 면이 있으며 실증적인 근거를 위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최서형. 담적-위장이 굳어지는 새로운 위장병의 발견과 치료법. 헬스조선. 2009.
2. 최승훈. 한방병리학. 일증사. 1997.
3. 전국한의학대학교 비계내과학교실. 脾系內科學. 군자출판사. 2008.
4. 朱正. 对中医诊治症瘕的体会. 福建中医药. 1962(05):36-37.
5. 湖南中医学院. 农村常见急症中医简易疗法(续). 中医杂志. 1966(07):39-41.
6. 陈选平,赵玉哲. 贺本绪老中医医案. 陕西中医. 1981(03):3-4.
7. 方药中. 消法. 陕西中医. 1981(04):35-36.
8. 陈叔达. “百象汤”治疗小儿百日咳. 上海中医药杂志. 1981(06):10-11.
9. 项平. 周小农诊治老年病经验拾萃. 辽宁中医杂志. 1982(09):22-23.
10. 李超. 儿科医话两则. 湖北中医杂志. 1982(06):11.
11. 朱国庆. 《金匱钩玄》治痰撮旨. 黑龙江中医药. 1984(05):10-11+22.
12. 陈家璋. 痰积砂淋1例治验. 中医杂志. 1985(04):28.
13. 李治方. 扶正化痰通淋法治疗泌尿系结石. 云南中医学院学报. 1988(02):33-34.
14. 汪贻魁. 皂荚在儿科的运用. 中医杂志. 1992(04):58-59.
15. 结胸. 医学文选. 1992(S1):112.
16. 痞积. 医学文选. 1992(S1):116-117.
17. 栾佩岳. 痰积致癰亟当化痰 身痛不休可恃温运. 上海中医药杂志. 1993(08):13.
18. 桔络货紧价扬. 河南医药信息. 1994(08):54.
19. 宋树乙. 自拟腰复散治疗急性腰扭伤204例. 中医函授通讯. 1995(02):31.
20. 时有斌. 消化功能障碍证治体会. 江苏中医. 1997(05):10-11.
21. 牛建义,魏文义. 浅谈下法的运用. 长治医学院学报. 1997(02):69-70.
22. 류정아, 박찬국. 학질(瘧疾)의 증상(症狀)과 기전(機轉)에 대한 문헌적(文獻的) 고찰(考察) -청대(淸代)까지 중국의학서(中國醫書)를 중심(中心)으로. 대한원전의학사학회지 12.1 (1999): 168-95.
23. 颜永潮. 鹿地五虫汤治疗梨状肌综合征经验. 江西中医学院学报. 2002(02):47.
24. 江冠亚,蓝燕红. 浅谈“善治脾者,能调五脏”. 河南中医. 2002(06):90-91.
25. 潘智敏,李玉花. 脂肪肝的病机及治疗研析. 浙江中医杂志. 2004(01):10-11.
26. 张年顺. 痰病钩玄——对3部中医权威辞书有关“痰”词条的研究. 山东中医药大学学报. 2004(02):86-89.
27. 连林辉,林甦,林求诚. 中西医结合治疗儿童哮喘急性发作疗效观察. 中国中西医结合杂志. 2004(12):1136-1137.

28. 潘善余. 脂肪肝诊治研析. 中医药临床杂志. 2005(05):446.
29. 卢翠飞. 二陈汤治验举隅. 中国民族民间医药杂志. 2005(05):305-306.
30. 徐士伟. 温下法临证举隅. 实用中医内科杂志. 2006(04):432.
31. 冷治文,王鹏. 肝纤维化证治六法. 中医药临床杂志. 2006(05):448.
32. 马宏. 礞石滚痰丸服法浅探. 中国中医急症. 2007(01):110-111.
33. 顾析玲. 中西医结合治疗声带小结69例. 浙江中医杂志. 2007(06):340.
34. 李永红. 辨“性”吃菜可治病. 今日科苑. 2007(13):84.
35. 李永红,严季澜. 对“腹痛宜和”的认识. 北京中医药. 2008(05):355-356.
36. 陈小明. 浅谈腰痛的辨证论治. 中国医药指南. 2009,7(16):115-116.
37. 高湛. 泄泻的古今诊疗概况. 北京中医药大学. 2010.
38. 王勇. 马玉琛教授风湿性间质性肺病痰毒并治研究. 中国人民解放军军医进修学院. 2010.
39. 本刊编辑部. 李学耕小儿哮喘治验. 中国社区医师. 2010,26(34):19.
40. 袁国荣,潘智敏. 潘智敏教授治疗积证的学术经验. 中华中医药学刊. 2011,29(10):2187-2190.
41. 高树彬,田志伟. 试论小儿“积常有”状态. 中医杂志. 2012,53(05):393-394.
42. 朱星,王明强. 金元四大家论泄泻特色浅探. 江西中医药. 2012,43(04):3-4.
43. 刘仁昌,王光铭,李春婷. 从郁论治胃食管反流病探析. 辽宁中医药大学学报. 2012,14(05):111-112.
44. 沈后刚,谭春雨. 明代名医李梴论治癥积病症的学术思想研究. 中华中医药学刊. 2012,30(05):1098-1099.
45. 朱星. 浅谈朱丹溪论泄泻. 时珍国医国药. 2012,23(05):1250-1251.
46. 陈怀民. 腰痛病证古代文献研究. 北京中医药大学. 2013.
47. 王皓宇. 《名医类案》与《续名医类案》泄泻案的用药、组方及证治特点研究. 黑龙江中医药大学. 2013.
48. 梁天坚. 谈谈《褚氏遗书》的中医生理病理观. 中国中医基础医学杂志. 2013,19(07):727-728.
49. 《黄帝内经》养生三原则. 商周刊. 2013(24):60.
50. 王群江,奚淑芳. 潘智敏“五积理论”治疗代谢综合征经验. 河南中医. 2014,34(05):813-814.
51. 严玉莲. “积常有”理论对小儿哮喘治疗的指导作用. 中医儿科杂志. 2014,10(03):9-11.
52. 识别真假瓜蒌子. 中国中医药现代远程教育. 2014,12(20):135.
53. 许海燕. 老年人肺部真菌感染的护理. 世界最新医学信息文摘. 2015,15(19):239.

54. 王颖. 栗锦迁教授治疗痴呆经验. 内蒙古中医药. 2015,34(10):35-36.
55. 中医教你一键清除这5种人体“垃圾”. 山东人大工作. 2018(07):64.
56. 张盼. 朱丹溪以脾为本论治泄泻特色举隅. 浙江中医杂志. 2020,55(01):17-18.
57. MEDICLASSICS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35>
58. MEDICLASSICS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32>
59.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韓醫學大辭典. 정담. 2001
60. MEDICLASSICS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46>
61. MEDICLASSICS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93>
62. MEDICLASSICS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90>
63. MEDICLASSICS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29>
64. MEDICLASSICS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208>
65. MEDICLASSICS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39>
66. MEDICLASSICS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86>
67. MEDICLASSICS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8>
68. MEDICLASSICS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207>
69. MEDICLASSICS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60>
70. 김정룡. 소화기계질환 제2판. 일조각. 2000. p.3
71. 이주희,오태환,정승기,이형구. 담음에 대한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2: 13(1):156-166
72. 장인규. 담음의 원인, 증상, 치법에 관한 문헌적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86;7(1):160-69.
73. 노주희, 이재홍, 장명준, 배재룡.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통한 식적(食積)에 대한 고

- 찰. 대한의료기공학회지(구 대한기공의학회지). 2009;11(1):173-197.
74. 정의민. 積聚 관련 病證의 개념에 관한 통시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2014
 75. 박재성, 김민용, 박영재. 담음변증 설문 개발을 위한 문헌연구. 대한한의원학회지 제10권 1호. p.55
 76. 김동규. 종설 : 담음에 (痰飲) 관한 문헌적 고찰. 동서의학 11.3 (1986): p.50.
 77. 전국한의학대학교 병리학교실 공편. 한방병리학. 일증사. 2001
 78. Zhu WF, Gao EX, Ji SL, Wang HM, and Deng ZY, et al. Textbook of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iagnosis : Etiological factors and Qi-Blood-Fluid pattern identifying method. Beijing : Ren min wei sheng chu ban she; 2002. p. 569-655.
 79. Lim JS, Oh HS, Lee SH, Park YB. Developing questionnaire for pathogenesis analysis of Pyungweesan symptom. J Korea Instit Orient Med Diagn 2007;11(1):72-81.
 80. 李均正, 李璫欽, and 申泰民.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담적(痰積)진단시스템의 설계와 응답특성. 전기학회논문지 D 55D.4 (2006): 189-94.
 81. 금속용어사전편찬위원회. 금속용어사전. 성안당. 1998
 82. 임하성 외. 경도계를 이용한 정상 한국인의 피부 경도 측정. 대한피부과학회지 2002;40(1) : 19~24
 83. 정재연. 간섬유화의 비침습적 진단. 대한간학회지 14권2s호. 2008: 22-33
 84. 김승업 외. FibroScan을 이용한 간탄력도 검사. 대한내과학회지 제74권 제5호.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ture Basis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Phlegm Accumulation*(痰積)'

Wookki Hong
Department of Clinical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Directed by Prof. Jinsung Kim, K.M.D., Ph.D.

OBJECTIVES

Since the publication of Choi's book on the '*Phlegm Accumulation*(痰積)' in 2009, the term *Phlegm Accumulation*(痰積) become widespread among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nd general public. Choi suggested that *Phlegm Accumulation* is the stiffening of the outer wall of the stomach.

The *Phlegm Accumulation* is a term that had been used in classical Oriental medicine books, but there are no researches on the concept of '*Phlegm Accumul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term *Phlegm Accumulation* in classical Oriental medicine books and contemporary studie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Phlegm Accumulation*.

METHODS

The *Phlegm Accumulation*(痰積) was searched in the MEDICCLASSICS of the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t was confirmed that *Phlegm Accumulation* was quoted 173 times in a total of 35 classical Oriental medicine books. Among them, 80 articles were analyzed in a total of 12 classical Oriental medicine books, excluding duplicated phrases. Modern studies that quoted *Phlegm Accumulation*(痰積) was searched in Korean Medical Database(KMbas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OASIS),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Database(CNKI). Within each articles, the basis for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Phlegm Accumulation* was analyzed, and the symptoms of *Phlegm Accumulation* were classified.

RESULTS

Phlegm Accumulation was quoted as the meaning of pathological substances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62 times, the largest portion of 46.6 percent, and as the general broad meaning of *phlegm* 35 times, as 26.3 percent second largest number. The meaning of *Abdominal Mass*(積聚) was quoted 22 times and the meaning of clumps of respiratory airway secretions was quoted 14 times.

Among symptoms related to *Phlegm Accumulation*, digestive diseases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with 40 cases, 30.1 percent of the total. Respiratory and infectious diseases accounted for 27 cases, 20.3 percent of the total. Neurological disorders accounted for 7 cases, 5.3 percent, and urinary and reproductive diseases for 11 cases, 8.3 percen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diseases such as musculoskeletal disorders, *Abdominal Mass*(積聚) and skin diseases were cited in connection with *Phlegm Accumulation*.

CONCLUSIONS

Phlegm Accumulation is a type of *Abdominal Mass*(積聚) that is characterized by the stiff lumps in abdomen. And also *Phlegm Accumulation* has the meaning of accumulation of *Phlegm-fluid Retention*(痰飲) that occurs throughout the entire body. Therefore it can evoke various symptoms in each part of the body. Although the meaning of Food Retention(食積) only related to ingested food, *Phlegm Accumulation* can be interpreted as containing various pathological substances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as well as ingested food.

The opinion that *Phlegm Accumulation* is the stiffening of the outer wall of the stomach is not well founded in the literature and requires further research for convincing evidence.

Key Words : *Phlegm Accumulation*(痰積), *Abdominal Mass*(積聚), *Phlegm Mass*, *Phlegm-fluid Retention*(痰飲), Stiffening of the stomach